



남가주한인목사회가 한미장로교회에서 제 95주년 3.1절 기념예배를 드렸다.

## 남가주목사회 95주년 삼일절 기념해

남가주한인목사회가 한미장로교회(이운영 목사)에서 제 95주년 3.1절 기념예배를 드리고 만세삼창을 외치고 삼일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백지영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예배는 대표기도에 이후형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부회장), 성경봉독에 김재권 장로(남가주한인목사회 이사장), 설교에 이운영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직전회장), 독립선언서 낭독, 삼일절 노래, 만세삼창 순으로 드러졌다. '3.1 운동에 끼친 기독교 정신'(사도행전 1장 6절-7절)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이운영 목사는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만세운동은 교회와

기독교학교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면서 "당시 기독교인의 수는 약 20만 명으로 전체 인구 1천6백만의 1.5% 정도에 불과했으나 민족에 미친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초대교회가 성경강림의 역사로 하나님나라 확장이 기폭제가 되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독립도 성령을 통한 강한 역사로 가능했다"고 전했다. 이어 "진정한 독립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변화를 받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요 독립이다"고 역설했다. 인사로 전한 정종윤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은 "비가 억수로 오는 날씨에도 참석해 3.1절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사무엘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중경회장)가 '기미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전제학 목사(남가주 한인목사회 부회장)의 인도로 삼일절 노래를 다 함께 불렀다. 이어 류달열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중경회장)의 만세삼창 인도, 이태환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차기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이날 기념예배 이후 글렌데일의 평화의 소녀상을 방문해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인규 기자

## 청년들이 교회 떠나는 주요 요인은 '동성애 비판'

젊은이들이 그들의 연장자들보다 덜 신앙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최근 조사에서 미국 성인 다섯 중 하나는 아무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34세 미만의 밀레니얼세대 중에서는 세 명 중 한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회를 떠나는 수가 증가하는 원인에 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공공종교조사기관(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 PRRI)이 26일 발표한 조사에서, 밀레니얼세대 약 3분의 1은 동성애에 관한 "부정적인 가르침"과 "부정적인 대우"가 그들이 자신의 종교를 떠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 특별히 밀레니얼세대(18세~33세) 17퍼센트는 종교 내 존재하는 동성애에 관한 부정적 관점이 그들이 종교를 떠나는 데 어느 정도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답했으며, 14퍼센트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답했다. 미국인 약 10명 중 6명(58%)은 종교단체가 동성애 문제에 과도하게 심

판하는 자세를 취해 청년들을 단체로 부터 멀어지게 만든다고 답한 반면, 밀레니얼세대에서는 이 수치가 70퍼센트에 달했다. PRRI 대표 로버트 존스(Robert P. Jones)는 "십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회와 교인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멀어졌지만, 새로운 연구에서는 교회가 이 문제에 관해 부정적으로 가르침으로써 청년들을 끌어들이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 PRRI가 2003년 이후 몇몇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비교한 바에 따르면, 종교, 정치, 세대를 막론하고 동성애 권의 및 동성 결혼에 대한 지지하는 비율이 늘어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4천 5백명에게 작년 11월 12일, 12월 18일에 동성 결혼법, 에이즈 관련 정책과 동성애 권의에 관한 종교의 역할 등 동성애 관련 주제들에 대해 물었다.

주디 한 기자

## Bibles for China

### 성경 2만권 배포한다

중국 선교단체인 '바이블스 포 차이나'(Bibles for China, BFC)가 오는 5월 중국에 약 2만권의 성경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FC의 웬델 로벤스타인은 미션네트워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갈급해 있다. 우리 팀이 지원을 가능한 많이 받아서 성경을 보급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그는 "성경이 많이 보급될수록 더 많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BFC는 성경 한 권당 5달러씩 후원을 받고 있다. 이는 성경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이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로벤스타인은 "성경은 정말로 필요하

다. 이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션네트워크뉴스는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여행에 관심이 있다면, 5월까지 아직 기회가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정시에 이뤄지기 위해서는 빠듯할 수도 있다. BFC는 11월에도 이번 행사를 다시 진행한다"고 전했다. BFC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성경책이 중국에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잘 보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주고받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다. 로벤스타인은 "다른 이들이 이 일에 동참하길 바랄 뿐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주님께서 위대한 추수를 하게 하실 줄 믿는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 한국 정부, 北 억류 김정욱 선교사 송환 촉구

지난달 북한은 지난해 '국가정보원 첩자'라며 체포해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51) 씨를 지난달 말에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김 목사는 이 회견에서 "북한에 들어간 다음 날인 작년 10월 8일 체포됐으며 반국가범죄 혐의에 대해 사죄한다"고 밝혔다. A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작년 11월 초 밀입북한 '남조선 정보원 첩자'가 체포됐다고 밝혔으나 신

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북한에 억류자의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통지문을 보내려고 했으나 북한은 통지문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김 목사는 중국 단둥(丹東)에서 성경과 기독교 교재, 영화 등을 가지고 평양에 들어갔으며 북한에 잠입하기 전 국경원 관계자와 여러 차례 만나 수천 달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들에게 건강하게 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어서 기자회견을 요청했다"

며 북한 당국이 '자비'를 베풀어 석방해주기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명의로 논평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을 조속히 석방해 송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북한이 정부의 신원 확인 요구에 묵묵부답하다가 김 씨 체포 4개월여 만에 신원을 공개한 것은 "인도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희희 기자

**나라정비**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http://www.christianmutual.org)

**Min Kim**  
CEO

## 청지기 프로그램

### STEWARDSHIP PROGRAM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른뱅크에서 나누어 드리는 청지기 프로그램 지원금을 통해 미주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가 향상되길 바랍니다.

**청지기 프로그램 수혜자 명단**  
 (by Open Stewardship Foundation)

- City of Refuge Mission Center
- Community Special Program Partners
- Duranno Father School, USA
- Family Saver Center
- Gilgal Recovery Ministry
- H.Y.M. (Here am I Young Christian Movement)
- Hanmi Family Counseling Center
- Happy Village – The Korea Daily
- Hope Sight Mission Association
- Hyosarangus Mission
- Institute for the Study of Asian American Christianity (ISAAC)
- International Disability Ministry Association (IDMA)
- Joy Center for the Disabled
- K-A Elder Service
- Koinonia Mission
- Korean American Coalition
- Korea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Center
-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KFAM)
- Korean American History Museum
- Korean American Mission Center for Addition Recovery
-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

- Korean American Women's Association
- Korean Bible Mission
- Korean Community Services
- Korean Gospel Broadcasting Co. (KGBC)
- Korean Immigrant Workers Advocates of Southern California (KIWA)
- Korean Resource Center
- Korean School Association of America
- Korean Senior Citizen's Association of San Fernando Valley
- Korean Welfare Organizations of America, Inc.
- Koreantown Youth and Community Center
- LA Mom and Dad Mission
- Los Angeles Symphony
- Mental Health Family Mission
- Miju Holy City Movement
- Mom and Dad Mission
- Nanum Korean Cultural Center
- New Covenant Academy
- New Hope Mission
- Oaks of Righteousness Ministry
- Orange County Korean – U.S. Citizen League
- Rainbow Family, Inc.

- Sansang Bohoon Christian Church
- SEED International, ICN.
- Shalom Center for T.R.E.E. of Life
- Shalom Disability Ministries
- Shalom Life Line
- Somang Society
- SON Ministries
- Special Service for Groups, Inc.
- The Little Jesus Family, L.A. Inc.
- The Open Academy
- The Street Mission Los Angeles (Precious People)
- The Well Mission
- United Job Creation Council
- Vessel of Grace, Inc.
- Vision Care Service West
- Watered Garden Mission for Physically Challenged
- Wesley Music Ministries (LA Korean Youth Orchestra)
- World Special Federation
- Worldwide Marriage Encounter Section 19 Inc., Southern California
- Young Leaders of Orange County
- Young Nak Outreach & Transformation Foundation (YNOT)

\*Open Stewardship 재단이란?  
 Open Stewardship 재단은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2011년 오른뱅크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입니다. 동 재단은 매년 수익의 10%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오른뱅크에서는 본 지원금으로 종래의 기금제공 방식으로는 불충분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들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Reward Reception 3월 20일 6시 오른뱅크

1000 Wilshire Blvd., Suite 500, Los Angeles, CA 90017 | 213.892.1197

# 이집트 여성위한 기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하라”

## 3월 1일 세계기도일 예배 드리며 이집트 여성과 어린이 위해 기도

“2013년 8월 이집트 타흐리르 광장에서는 무르시 대통령 지지 시위자들에 대한 군부의 무력 시위 진압으로 2천 명의 어린이들과 여성을 포함한 시민들이 학살당했다. 무르시 지지자들과 군부에 의해 세워진 임시정부 사이의 힘겨루기는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암울한 상황을 계속 연출하고 있다.

이후 여성들은 허점을 쓰고 학교와 직장 내에서 성차별을 당하고 있다. 특히 이집트 남부의 일부 무슬림 가족들은 사춘기 소녀들을 학교에서 제외시켰다. 남성들과 접촉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다. 반면에 기독교 지역의 여성들은 가정, 일터, 학교에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 성차별의 정도는 훨씬 적다.

이집트에서 가족법은 전적으로 신앙의 전통을 따른다.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교회법을 적용받는데 그 법은 한 명의 아내만 허용하고 음행을 하거나 종교적인 회심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 1979년 첫번째 아내가 남편이 두번째 결혼한 사실을 알았을 때, 일 년 안에 이혼할 권리가 있었으나 1985년 이슬람 여성에게 허용된 권리의 많은 부분이 뒤집어졌다. 남편이 두번째 아내와 결혼할 때 첫번째 아내를 남편과 이혼할 권리를 상실했다.

수백만명의 이집트 어린이들이 빈곤가정에서 태어나는데 일부 가정들은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협하는 위험한 일자리로. 가정이 파괴되고 대도시 빈민가에서 생존에 허덕이는 아이들이 거리의 삶으로 빠져든다. 실의에 빠져 학업을 중단하고 이른 결혼 생활, 가정 학대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이집트인들은 밝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힘을 모으고 있다. 소수자를 보호하고 사회 경제적 정의와 평화 안전을 구축하고 정치 경제적 국제 관계를 진전시키기 원한다. 또한 이를 위한 강력한 민주정부를 기대하고 있다. 이집트 교회는 다양한 활동에 기여하면서 계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이집트 교회는 사막에 흐르는 시냇물 가운데 하나이다.”

3월 1일 토요일 10시 30분에 미주 평안교회에서 이집트 여성들을 위한 세계기도일 예배를 드렸다.

1887년 다윈 제임스라는 여성이 미당국으로부터 미국 이민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그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기도모임에서 시작된 세계기도일 예배는 올해로 127주년을 맞았다. 현재 180여 개국에서 교파를 초월해 매년 3월 첫째주 한 날 한 시에 모여 하나의 기도문을 놓고 기도한다. 세계평화와 세계 복음화 및 특별히 기도문을 작성한 국가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예배를 통해 모금된 헌금은 기도문 작성국, 선교사들, 소외된 이들을 돕는 데 사용된다.

2014년 기도문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하라”는 정치 경제적으로 암울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이집트 여성들이 작성했다. 사회를 맡은 미주한인교회 여성연합회 남가주지역 회장 최미란 권사는 이집트 여성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이유를 전하며 예배의 문을 열었다.

영상을 통해 이집트의 현상황을 소개한 후 <부름과 응답>에서는 선한 목사장로교회 이란에 장로의 인도로



지난 3월 1일 미주평안교회에서 이집트 여성들을 위한 세계기도일 예배를 드렸다.

헝시바 노래 선교단의 특별찬양과 남가주연전도회연합회 최순자 사모의 대표기도가 이어졌다.

다음 순서에서는 라팔마 KUMC 태란영 권사가 인도하는 가운데 동양선교교회 홍수지 권사가 <고백과 기원>을 낭독했다. <감사와 찬양>에서는 이집트 여성으로 분장한 금란 KUMC의 네 여성이 이집트 교회와 이집트를 위한 도움을 통해 여성의 변화된 삶과 가능성에 대해 전했다. 이어서 CTS 여성합창이 특별찬양을 불렀다.

설교에 앞서 라팔마 KUMC, 시온성중앙교회의 유희진 집사, 온누리교회 이영인 집사가 스킷 형식으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장면을 연출했으며 캘리포니아 메스토코랄이 특별찬양을 했다.

말씀을 전한 임승진 목사(미주평안교회 담임)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예수를 믿기 전 사마리아 여인은 고립되고 상처받고 목마른 인생이었다.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길으러 왔다는 것은 고립된 삶을 살

목마르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것을 좋아한다. 그 끝자락이 마약이다. 몸과 마음이 망가져도 계속 찾는다. 미국의 한 주에서 마약을 인정해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예수 없는 인생은 목마른 인생, 고립된 인생, 상처받은 인생이다.”

마지막으로 메마르고 고통받는 지역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된 모습과 같이 변화되길 기원했다. “예수를 만난 후 이 여성은 목마른 인생에서 벗어나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된다. 기쁨을 여백 할 수 없어 나가서 외친다. 환희에 찬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집트 땅에 이런 자들이 많아 지도를 외쳐야 한다.”

설교 후 전총회장 정의희 권사의 인도로 응답송 “우물가의 여인처럼”을 불렀다. 드림교회 이영희 권사는 헌금이 이집트 선교와 전세계 고통받고 소외받는 이들을 돕는데 사용될 것이라 설명했다. 봉헌에 이어 Hessed Global 예수선교회가 특별찬양을 했다.

중보기도를 맡은 온누리교회 석승연 권사는 “헌금이 이집트 교회와 복음화를 위해 쓰여지길”, “차별당하는 자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그 땅에 그리스도의 꽃이 피길”, “한국, 미국, 각 지역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길”, “이민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길” 기도했다.

마지막 순서 <괴송과 축복>은 임마누엘로교회 황에스터 목사의 인도로 마무리했다. 세계기도일 예배는 미주한인교회 여성연합회 남가주지역 주최하고 미주한인기독교 총연합회와 기독교일보가 후원했다.

주디 한 기자



지난 2일 나눔과섬김의 교회가 창립 1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 나눔과섬김의교회 1주년 기념 감사예배 드려

### 엘리아 김 목사 “LA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음성 전할 것”

나눔과섬김의교회(엘리아 김 목사)가 창립 1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2일 오후 4시에 드렸다.

이날 설교한 민준기 목사는 “형편이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라며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나눔과섬김의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예배는 인도 엘리아 김 목사, 대표기도 이요셉 강도사, 특별찬송 최선디 집사, 설교 민준기 목사, 축사 양기호 목사, 격려사 고영준 목사, 축도 서정일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엘리아 김 목사는 창립 1주년을 맞아 “제가 꿈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낸 사랑을 본받아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표현하고

전하는 것”이라며 “상한 심령을 찾아 LA 땅 구석구석을 누비며 간절히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외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한다”고 밝혔다.

나눔과섬김의교회는 LA한인타운 올림픽 블러바드와 후버스트리트 북동쪽에 위치해 있다.

> 문의 : (213)272-6031

토마스 맹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W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장미캡슐로 여성건강을 지키세요”**

40대의 불균형, 50대의 갱년기, 60대 이상 모든 여성들이 겪는 혹독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은 가히 전쟁과 같다고 합니다. 갱년기 우울증, 발한, 안면홍조, 가슴두근, 노화 등을 걱정하는 이시대 중년여성에게 드리는 굿 뉴스~~~

장미오일  
건강기능식품

아름다운 여성, 건강한 중년을 위한

**퍼스트레이디**

**주요성분** 불가리안 장미에센셜, 달맞이꽃 감마리놀렌산, 비타민E

**효능**

- ❖ 퍼스트레이디에는 여성을 위한 필수영양소, 감마리놀렌산이 풍부합니다.
- ❖ 퍼스트레이디에는 불가리안 장미오일 에센셜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 ❖ 퍼스트레이디 복용후 3개월이 지나면 장미체취로 변화된 모습을 느낍니다.

달맞이꽃종자유 함유로 여성의 생리환경개선 • 식약처(KFDA) 공인 건강기능식품 • 불가리안 장미에센셜오일의 강력한 진정작용, 항산화작용 • 캡슐하나에 장미 2500송이 농축

세종바이오텍의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

**세종 송보감**

“충추는 당노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뇌보감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高麗발효삼**

“항암 효과, 기력향상, 원기회복”  
“고려대학교, 엑스 생명연구 개발”

세종 **요로정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Sejongbiotech, Inc.

**세종바이오텍**

www.sejongbiotech.us

**213-383-8899**

621 S. Virgil Ave. #270 LA CA 90005

# 삼일절 기념 평화통일 소망 기도회 개최돼



OC교협과 민주평화통일OC산디에고협의회가 삼일절 기념 평화통일소망기도회를 2일 오후에 나침반교회에서 개최했다.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회장 민경엽 목사)와 민주평화통일오렌지카운티 산디에고협의회(권석대회장)가 공동주관해 제 95주년 3.1절 기념 평화통일소망기도회를 2일(일) 오후 4시 나침반교회에서 열었다.

송규식 목사(OC교회협의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국민의례순서에 따라 정하윤 양의 선창으로 미국 국가와 애국가를 불렀다.

이어 김기동 목사(O.C 교협부회장)가 대표기도하고 박용덕 목사(O.C 교협 이사장)가 말씀을 전했다.

박 목사는 시편 60편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 할 것발'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가운데 "95년 전이 일어났던 3.1운동은 우리 한국 민족이 일제로부터 자주 독립을 하고자

하는 민족의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렸던 운동이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제 우리들은 송고한 3.1 정신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남북통일에 꿈을 실현하는데 기도에 힘쓰자"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평화통일 기도회 순서에서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과 독도 수호',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안전과 북한 인권 개선', '미국과 한국의 도덕적 회복을 위하여'라는 기도제목에 이은 후 목사(OC교협 부회장), 김영찬 목사(OC목사회 회장), 허귀암 목사(중부교협 회장)가 각각 기도를 이끌었다.

이날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화상시청이 있었다.

박창민 기자

## 규칙적인 생활과 휴식으로 '독감 예방' 가능해

올해 독감 유행은 4월 말까지 계속된다는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40대 젊은층들이 감기에 잘 걸리고 있어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본지는 일선에서 한방으로 독감 예방 및 치료에 힘쓰고 있는 새빛한의원의 이은숙 원장을 만나봤다.



새빛한의원의 이은숙 원장

-요즘 독감이 계속 유행하고 있는데 환자들의 추세는 어떠한가?

일반인들은 감기의 증세가 시작되면 첫 일주일 간은 어떠한 처방도 받지 않고 혼자 견딘다. 그 다음엔 집에 있는 약을 처방 없이 복용한다. 그후에도 증세가 호전 되지 않으면 항생제를 복용한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감기가 쉽게 치료 되지 않아 고생 한다.

첫째는 저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감기가 들어온 것이 문제이고, 둘째는 감기를 방치하거나 혹은 강한약으로만 다스리려 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방치하지 못하는 몸에 강한 약 복용은 시간이 가면서 더욱 몸이 힘들어 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서 후유증으로 마른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알러지성 비염 혹은 천식 등의 증상을 갖고 한의원을 방문한다. 항생제는 세균을 효과적으로 박멸하나 몸의 좋은 세포에조차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 장기복용시 구역감, 구토, 소화장애, 두통, 졸음과 지나친 나른함, 피부 트러블, 간 부작용, 신동성부작용을 종종 나타나게 한다. 최근엔 이렇게 항

생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가 내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소 안타까움을 느낀다. 감기는 첫 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감기증상을 느끼는 첫날에 제대로 된 감기약을 복용하게 되면 들어오고 있는 감기가 그날로 물러난다. 그러나 치료시기를 놓쳐 1-2주 감기로 고생한 후 내원하게 되면 5일분의 가벼운 감기약 처방으로 치료가 될 감기를 2-3주 정도 연장 치료를 하게 되어 비용과 몸의 괴로움이 추가 되는데 한방 전문가 입장에서 다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강한 항생제의 내성이라도 그를 밀어내고 감기의 뿌리를 뽑아내는 천연 한방 약재가 있음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최근엔 종종 강한 항생제 복용으로도 증상의 호전을 보지 못해 고생을 하는 환자들과, 치료시기를 놓친 후 심한 기침에 잠 못 이루는 환자가 많은 추세다.

일단은 항생제 복용으로도 호전을 보지 못한 경우라면 한방에서 처방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한의학에서의 감기 치유는 어떻게 하나.

서양의학에서는 바이러스를 감기

의 원인으로 보고 항생제나 코데인(codeine, 아편 추출물로 진해제, 진통제 혹은 항 바이러스제로 쓰임) 성분의 약을 사용한다.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만큼 약을 복용한 후 심하게 졸음이 오거나 몸이 나른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 이것을 당연시 하는 것이 문제다.

한의학적 시각은, 몸 안에 들어온 나쁜 기운을 이겨낼 힘이 부족할 때 감기가 걸린다고 보고(저항력 부족) 그에 맞는 약을 처방을 한다. 몸이 튼튼하면 당연히 나쁜 기운이 몸 안으로 들어올 엄두도 못낸다. 체질이 원래 약한 경우는 물론이며, 평소에도 건강해도 계속되는 피로와 과로 혹은 신경과민, 과다한 스트레스로 시달린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쉽게 감기에 걸린다고 본다.

동양의학의 원전 중 하나로 꼽히는, 기원 전 3세기 경 장중경(張仲景)이 저술한 '상한론(傷寒論)'을 보면, 질병의 가장 처음 처방을 감기약으로 시작했다. 이것은 감기 치료를 상당히 중요시 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천년 전부터도 한의학에서 감기를 소홀히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 하는 것이다.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며, 동시에 어떤 질병보다 그 변화, 즉 질병의 진행이 빠르다. 때문에 치료시기를 늦추게 되면 후유증으로 잦은 기침, 천식, 알러지성 비염, 신우신염 등으로 평생을 힘들게 살아갈수 있다.

약방에 구비되어있는 약은 일률적 처방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의 진찰을 거쳐 처방된 약은 각 개인의 체질과 현 증상을 정확히 파악한 후 조제를 하는 관례로 비교적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양약을 사용할 수 없는 어린이의 경우에도 한방 감기약 조제가 가능하다. 항생제 종류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체 치료법으로 최근엔 천연 한방감기약을 선호하여 직접 한의원을 찾아와 전문가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방에서 사용하는 약재는 천연 재료가기에 부작용(구토감, 졸음, 나른함, 소화장애 등)이 없어 직장인 등에게 큰 도움이 된다.

-감기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이 있다면.

하루에 8시간을 일한 후에는 반드시 쉬는 시간. 단 부득이 오버 타임을 해야 할 경우라면 저녁 식사 후 1시간가량 휴식한 후 연장 근무를 하는 것이 좋으며, 점심 식사 후엔 15~20분 정도를 자기만의 휴식시간으로 정하여 눈을 감고 명상의 시간을 갖거나 짧지만 잠들 수 있다면 오후 시간을 즐겁게, 건강하게 마칠수가 있다. 평소 몸이 약한 체질은 이러한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첫발걸음이다.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가족을 사랑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 또

한 식사를 제시간에 규칙적으로 한다. 일주일에 2번쯤은 가볍게 1시간 가량을 집 주변의 등산 코스를 찾아 아침 등산을 한다.

-한의사로서 바람이 있다면.

양의사든 한의사든,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 주어야 하는 입장에서 있다면, 환자들을 병고에 시달리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에 대해 항상 연구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일률적 처방과 습관적 진료는 있을 수 없다.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서양 의학과 한의학의 협진은 꼭 필요한 것이다.캘리포니아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모든 의료보험이 한방을 포함시킨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까운 시일 안에 동서양의 결합 치료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는 서양 의학과 한의학의 동시 치유가 중요한 때이다. 머지않아 오바마케어 가입자도 한방케어가 가능할 때가 올 것이다. 새빛한의원은 서울 메디칼 그룹과 조인 단계에 있으며, 또한 메디칼 메디케어 플랜인 Central Advantage Care(센츄럴 어드밴티지케어)에 가입되었다. 이 플랜은 메디칼 메디케어를 가진 사람이 연 24회의 한방 치료가 가능한 플랜이다.

문의 : 새빛한의원 - 3130 W.Olympic Bl. #380 LA CA 90006 / 323-735-6365 박창민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LA 한남체인내 건강제품코너**

인터엔이 직접 캔 **천종야생 산삼**

매실, 홍삼, 비타민, 녹용, 각종 한방 농축즙

**213)386-3585**

www.uslahealth.com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융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약도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 “말로만 예수님이 주인... 개신교엔 상왕(上王) 없어야”

최덕성 박사, ‘내게 돌을 던져라’ 통해 교회 개입하는 원로 비판

“개신교회의 원로목사 또는 은퇴 목사와 후임 목사 간의 관계는 모세와 그 장인 이드로 사이의 관계가 아닙니다. 장로회는 원로목사와 담임목사가 한 배를 타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최덕성 박사(브니엘신학교 총장)가 온라인 신학저널 ‘리포르만다(reformando.co.kr)’에 게재한 ‘내게 돌을 던져라’에서 최근 한국교회에 잇따르고 있는 원로-후임 목사간의 갈등에 대해 장로회 제도와 교회론적 입장에서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이 글에서 “개인의 자유 제약에 민감한 미국에서도 장로교회(PCUSA)는 퇴임 또는 은퇴 즉시 다른 도시로 곧 일정한 거리 바깥으로 이사를 가서 살겠다는 서약 문서에 서명을 하고 담임목사로 부임한다”며 “이는 수백 년의 경험을 거쳐 만든 제도로, 전임 목사가 지위력을 이용해 퇴임한 교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 폐습을 막으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또 “오늘날 교회 안의 ‘상왕(上王)’은 조선왕조 ‘태종’처럼 아들을 위해 정적을 제거하고 곱은 일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곱은 일은 후임자에게 떠맡긴 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담임목사가 목회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정상적인 목사라면 은퇴와 더불어 교회를 떠나 후임 목사 선정에 개입하지 않고, 후임자의 목회 활동을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폐나 누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박사는 “은퇴한 목사는 오랫동안 교인들과 같이 맺은 인간적인 관계로 후임 목사에 대해 전임 목사의 간섭·불만·푸념·걱정은 골장 대다수 교회 구성원들에게 전달돼 교회 갈등과 분란의 화근이 된다”며 “은퇴한 목사는 퇴임 시점부터 그 양태의 목사-목사가 아니고 엄격히 ‘은퇴’란 목사는 직책 자체를 그만두는 것이며, 장로회 제도는 ‘상왕 목사’ 또는 ‘시

어머니 목사’ 지위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퇴한 목사의 교회 간섭·통제·자유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교회론과 치리회 규정은 없기 때문에, 퇴임 후 계속 교회에 지위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후임자의 활동을 간섭하는 것은 규칙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 글은 교회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故 옥한흠 목사의 ‘공개된 비밀편지’에 대해 ‘옥(玉)의 한 흠(欠)’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는 등 사실상 사랑의교회를 겨냥하고 있어 찬반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다음은 최 박사와의 일문일답.

**- ‘내게 돌을 던져라’ 는 글은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어느 교회 담임목사의 요청으로 쓴 것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를 만나거나 대화한 적이 없고, 그 교회를 방문해 본 적도 없습니다.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은 일도 없었습니다. 단지 한국교회 안의 뿌리 깊은 병폐를 바로잡고, 개신교회 안에는 ‘상왕·시어머니 목사’ 제도가 없음을 알리려 쓴 글입니다. 저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공로주의를 척결해야 교회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교회 분쟁에 신학자가 나서느냐고 비난할 사람도 있을테지만, 신학자의 급선무는 자기 시대에 교회가 필요로 하는 답을 제시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 많은 이들이 이 교회 담임목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데, 교회를 떠나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으신지요.**

“아닙니다. 저는 그를 만나거나 대화한 적이 없고, 그 교회를 방문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은 일도 없었습니다. 단지 한국교회 안의 뿌리 깊은 병폐를 바로잡고, 개신교회 안에는 ‘상왕·시어머니 목사’ 제도가 없음을 알리려 쓴 글입니다. 저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공로주의를 척결해야 교회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교회 분쟁에 신학자가 나서느냐고 비난할 사람도 있을테지만, 신학자의 급선무는 자기 시대에 교회가 필요로 하는 답을 제시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언론 보도문들과 함께 격문(擊文)을 담은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임해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치리회의 결정을 따라 자숙 기간을 거치지 않았던가요? 아무쪼록 이제 ‘하나님 앞에서(Coram Deo)’의 삶과 중심이 올바른 목회에 충실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목사도, 주인도, 주관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 교회 담임목사의 선임자가 보낸 편지에 대해, ‘배후에 차마 말하기 어려운 무슨 동기’와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원로목사가 퇴임할 당시 그 교회는 이미 초대형교회였습니다. 회집 인원이 1만여명 이상이었어. 그런 처지에서 후임자가 자신보다 큰 대형교회를 추구한다고 비판하는 일은 모순입니다. 차마 말하기 어려운 동기와 이유에 대한 글의 행간에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치리회(당회·노회·총회) 결정에 순종해야 하지만, 교회가 원칙대로 합리적으로 결행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휩쓸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칙과 합리성을 벗어난 결정은 중세 교회처럼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개혁교회는 중세 교회의 타락에서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원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단, 이는 치리회-교회의 결정이 성경의 가르침과 명확히 어긋날 경우입니다. 중요한 것은 ‘명확한 경우’에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치 정권에 아부한 독일 교회나 일제의 우상숭배를 강요한 한국교회와 같은 경우 말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교회 치리회의 결정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일단 순복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임 목사는 교회를 성장시킨 공로자들인데, 그들에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라는 건 지나친 처사 아닐까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그렇다고 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처신함이 교회 갈등의 주 원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인본주의와 세속적 발상을 배격합니다. 공로주의는 기독교 신앙과 무관합니다.”

**- ‘목사직 계승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이고 인본주의적 발상을 배격하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숙한 교회는 목사직 계승 과정을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면서 치리회 규례를 따라 품위 있고 질서정연하게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동선(動線)을 강하게 포착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공로주의와 인본주의를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치리회가 정상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해도, 시민들의 도덕의식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교회를 지탱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교회 사안들에 대한 명료한 주장, 탁월한 영성, 무교병 같은 윤리적덕, 청렴결백, 신령한 은사, 합리적 해결책 등이 개혁교회론과 치리회 규정 및 판단을 넘어설 경우에는 타당성과 실효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회론과 치리회 규정은 성경 말씀과 합리성과 역사적 경험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고전 14:33).”

**-전·후임간 갈등 외에도 목회자들의 윤리적 결함으로 기독교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있나요.**

“우리는 고귀하지만 사람을 구원하지도, 살리지도,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기독교 윤리운동 단체들의 노력과 수고는 귀하지만, 저는 차라리 복음전도 운동에 ‘울인’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복음도, 사랑도 없는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반기독교 운동을 자극해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킬 뿐입니다. 복음으로 변화한 자가 성령 안에서 윤리적으로 성화하게 하는 것이 윤리적 목표에 도달하는 지름길입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사도행전 30장 운동’이란 무엇인가요.**

“단순한 기독교(Christianity Simplified) 운동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존하는 신세계 복음전도와 교회확산 운동을 말합니다. 단순한 것에 힘이 있습니다. 단순한 신학·교리·신앙·복음전도, 소박한 교회개혁 운동으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려는 운동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과 고사(枯)한 세계교회협의회(WCC) 종중교회들의 텃밭인 유럽·북미·대양주까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고백하는 교회를 세우는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최덕성 박사는 부산 브니엘신학교 총장을 맡고 있으며, 신대원 과정 교의학을 직접 가르치고 있다. 브니엘신학교는 25년 역사의 목회자 및 전문인 선교사 양성 학교이자 아시아신학연맹(ATA) 학위(M.Div, MA, BA) 인준 기관으로, 200여명의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 “ ‘짐승의 표’ 는 하나님 반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돼야”

‘베리칩(Verichip)’은 기독교의 구원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 베리칩은 ‘Verification(확인, 증명)’과 ‘Chip(반도체)’의 합성어로, 사람의 몸 속에 이식하는 쌀알 크기의 칩이다. 개인의 생체정보 등이 저장된다. 그런데 이 베리칩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짐승의 표’ 혹은 ‘666’과 관련돼 있다는 논란의 대상이



박명몽 목사.

되고 있다. 기독교 변증가인 박명몽 목사(큰나 무교회 담임)가 ‘베리칩에 대한 기독교 변증적 이해’라는 글을 통해 베리칩과 구원의 관계를 분석했다. 박 목사는 이 글을 월간 <교회성장> 3월호에 기고했다. 박 목사는 이 글에서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며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구원받았음을 확신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단순히 베리칩과 같은 물질을 우리 몸에 이식한다고 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사라지거나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며 “성경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베리칩을 우리 몸에 이식시키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목사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항하는 세력에 동조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포함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베리칩을 이식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부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구원과 베리칩은 무관하다. 기

독교의 구원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살재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구원 안에 사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진영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 T. 213.487.0691

##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마음편한 이사

가주 삼성 통운이 함께 하겠습니다.

"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일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참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참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참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래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저희 “가주 삼성 통운”은 명예와 자존심을 걸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무료 전화 1-877-580-2424

사우스 베이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 믿음이 적은 자들이

## 마태복음 8:23-27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마태복음 8:23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좇았더니 24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는 주무시느니라 25 그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하시니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 그 사람들이 기이하여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마8:14-15)”

베드로는 어부로서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나선 이후로 그 집은 가장이 없이 그 아내가 자녀들을 돌보며 살아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 형편에 그 장모가 함께 살며 베드로의 빈자리를 메워 딸의 집에서 그 가정을 도우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열병에 걸려 앓아눕게 되면서 그 소문은 온 동네에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고 그 앓아누운 장모의 손을 만지심으로 나음을 입은 장모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경합니다. 앓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봄으로 이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면서 그 동네의 많은 병자들이 베드로의 집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고 치셨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은 예수님을 그 동네로 모셔들이는 계기가 되었고 그 장모의 열병이 나온 것으로 인해 온 동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볼 수 있고 그 능력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재료거리로 활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마8:17)”했습니다. 구약에서 1600여년을 두고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의 집과 그 동네가 다 알아보도록 예수님의 능력과

사람이 증거 되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8:19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좇겠다고 말합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좇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으로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이 자신을 따르겠다는 말 속에 영적인 소망을 위하여 믿음으로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기대를 걸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허황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임을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중심이 간절하고 수고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애쓰다보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심으로 마음껏 섬기고 남을 수 있도록 건강과 은혜, 물질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가 에워쌌을 보시고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허둥대며 불안에 떨며 죽을까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기술, 노력을 다해 배를 조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기술과 경험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예수님을 찾지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에게서 가능성이 라는 기대가 없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더 이상 스스로 지탱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無知) 때문에 괜한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며 헛고생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깊게 알면 알수록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호세아 6:3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향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를 향해 원망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믿음이 없던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모세는 태연하게 지팡이를 들고 언덕에 올라가 많은 백성들이 다 듣고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14:13-14)”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은 하다가 어떤 환란과 풍파가 일어나더라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 일을 지시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고 유익한 결과로 이끌어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십니다.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다도 순종하느니라”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라는 신분은 가지고 있

었지만 그 스승인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풍랑을 통해 제자들부터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풍랑이 일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풍랑을 통하여 그날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왔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향하신 기대, 사랑을 체험시켜 주시기 위한 환란이고 풍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절대로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즉시로 해결이 서둘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속적 기대와 헛기로 인하여 당하는 환란과 풍파는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말씀 따라 복종하며 살겠으니 용서해 달라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 용서받음으로 해결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9:10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 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 30분 / 동부 오후 7시 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교일보	5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인터넷신문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 30분 / 금요일 오후 2시 30분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주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기독교일보는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 위에 현 시대를 읽는 균형 잡힌 시각과 정론을 제시하는 교계 신문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미디어의 지평을 선보일 기독교일보를 기대해 주십시오.  
 많은 기독교인들의 자부심, 꿈과 희망이 되는 미디어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일보를 향한 관심과 사랑,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739-0403



# 201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p><b>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b>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p>	<p><b>FULLER THEOLOGICAL SEMINARY</b>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b>호라이즌대학교</b>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p> <p>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 736-5115</p>	<p><b>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b>        TRACS 정회원 인준        특징: Sex I-20 발행/ 선교사 정착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p> <p>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b>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b>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p> <p>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p>	<p><b>솔로몬대학교</b>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p> <p>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p>	<p><b>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b>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p> <p>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b>ABSW President: Dr. Paul Martin</b> www.absw.edu</p>	<p><b>미주대한신학대학</b>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p> <p>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p>
<p><b>코헨대학교&amp;신학대학원</b>        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b>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b>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요 박사</p> <p>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p>	<p><b>미주충신대학교</b>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사명을 이끌어 갈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p> <p>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p>	<p><b>미주성결대학교</b>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p> <p>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org</p>





#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기독교의료상조회에 가입하시면 **Religious Exemption(종교 벌금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오바마케어 법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전국에 4개 뿐인 Health Care Sharing Ministry(오바마케어 크리스천 벌금면제 플랜)중 하나이며, 유일한 한인 단체입니다.

### ▶ 기독교의료상조회(CMM) 플랜

프로그램	골드플러스	골드	실버	브론즈
1인	\$175	\$135	\$80	\$40
2인	\$325	\$260	\$160	\$80
3인 이상	\$425	\$385	\$240	\$120

\* 소득, 신분, 나이와 상관없이 가격이 동일합니다.

### ▶ 기독교의료상조회(CMM) 플랜의 특징 및 장점

- 성경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플랜입니다.
- 한국(선교지)에서 사용한 의료비도 지원합니다.
-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모든 의사나 병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크리스천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과 신분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 ✓ **소득**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하는 분
- ✓ **신분** 때문에 정부로부터 오바마케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
- ✓ **신앙**적인 이유로 오바마케어 가입을 원치 않는 분

### 각 지역 최고의 의료진이 함께합니다!

**차민영 내과**  
213-480-7770  
520 S. Virgil Ave. #103, Los Angeles, CA 90020

**한경모 내과**  
213-387-7800  
2681 W. Olympic Blvd. #221 Los Angeles, CA 90006

**조지인 가정주치의**  
213-380-8202  
500 S. Virgil Ave. #501 Los Angeles, CA 90020

**강수웅 내과**  
562-868-6256  
11832 Rosecrans Ave. #127 Norwalk, CA 90650

**백성렬 내과**  
909-839-0455  
20627 Golden Springs Dr. #2D Diamond Bar, CA 91789

**오문목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949-552-8217  
3500 Barranca Pkwy. #330 Irvine, CA 92606

**조섭 메디칼 그룹**  
714-739-4325  
6261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이선우 류마티스 내과  
이호랑 위장내과**  
323-938-0006  
4465 Wilshire Blvd. #303 Los Angeles, CA 90010

**안우성 내과**  
562-916-5020  
20145 S. Pioneer Blvd. Lakewood, CA 90715

**유원계 위장내과**  
714-937-9400  
230 S. Main St. Orange, CA 92868

**차할리우드 장로병원은 한인 사회와 기독교의료상조회 회원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차할리우드 장로병원은**  
더 나은 시설에서  
더 나은 서비스로  
더 나은 경험을 드립니다.

### 434베드 규모의 최초 한인 운영 종합병원!

- 한국 CHA 병원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시설 및 장비를 보유
- 분야별 최고 권위의 한인 전문의
- 아시안 환자 전문 병동 및 다수의 한인 간호사 상주

888-522-3455 (대표전화) 323-913-4900 (한국어 안내)  
1300 N.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27

**CMMI** 기독교의료상조회  
www.christianmutual.org  
CHRISTIAN MUTUAL MED-AID  
52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가입문의

# 213-986-8119

CMM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험회사가 아니며, 비영리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의료비분담사역) 단체입니다.

# 미국 선교 지도자들 전도에 무관심한 세대 개탄

## “예수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 책임져야”

미국의 선교 지도자들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무관심한 현실을 개탄했다.

미국의 선교단체 리치비อนด์(Reach Beyond)의 대표인 웨인 피더슨(Wayne Pederson) 회장은 최근 개최된 전미종교방송인협회(NRB)의 국제기독교미디어회의(ICMC)에서 발제하며 이 같은 무관심은 특히 서구인들 가운데서 두드러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피더슨 회장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영원한 삶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리치비อนด์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교사역의 긴급성을 강조해 왔다. 그는 “우리의 문제는 자기 자신의 동지 안에서 살아가며 그 편안함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집으로 초대하는 어려움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더슨 회장은 그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채 영원한 삶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특히 피더슨 회장은 타 종교 전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독교인들의 자신만의 편안한 지대에서 벗어나



웨인 피더슨 회장(왼쪽)과 웨인 셰퍼드 회장(오른쪽). ©크리스천포스트.

서 다른 종교 커뮤니티들에게도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세계선교에 동참하는 일은 더 쉬운 일이 되었다며, “이 시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지 않아도 되는 시대다. 그들은 바로 우리의 이웃에 있다”고 강조했다.

피더슨 회장의 발제에 이어 라디오 선교사역 단체 트랜스월드라디오(TWR)의 웨인 셰퍼드(Wayne Sheperd) 회장은 이사야서 49장 6절(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을 읽으며 선교사역에 헌신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TWR의 사역은 “복음을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하는 매

우 단순한 사역”이라고 소개하였다. 이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에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주신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은 특권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셰퍼드 회장은 기독교인들에게 “준비되어 있으라”고 권면했다. 그는 “몇 달 전 태풍이 필리핀을 황폐화시켰을 때 우리의 사역팀은 가장 먼저 대응팀을 만들었고 태풍 생존자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나눠주었을 뿐 아니라 이들에게 라디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까지 세계의 많은 지역은 어둠에 잠겨 있고 우리의 노력은 아직까지는 최고에 달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지역들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간다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고 선교를 향한 열정을 새롭게 하기를 당부했다.

손현정 기자

# 저스티스 컨퍼런스, “그분의 뜻은 가장 상처받기 쉬운 이를 돕는 것”



저스티스 컨퍼런스에 조쉬 개럴스가 연설자로 참석했다. ©WORLD RELIEF

미국 및 여러 국가의 크리스천 수백 명이 인신매매, 노예제, 빈곤, 에이즈와 인권 침해 등 현대 사회의 불의를 고발하고 성경적 사회 정의를 촉구하기 위해 2월 22-23일(토-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모였다.

사회 정의 및 성경적 정의에 관한 세계 최대 규모의 모임인 “정의 회의(Justice Conference)”에는 미국 44개 주와 24개국 넘는 국가에서 200명 이상의 관계자와 함께 1천8백 명이 참석했다.

이 회의를 주최한 월드 릴리프(World Relief)의 스테판 바우만(Stephan Bauman) 대표는 “노예제도, 도시 빈곤, 에이즈 같은 현대의 부정을 완전히 몰아내는 데 꼭 필요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모으기 위해 여기 모인, 영감이 넘치는 지도자들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건 가슴 벅찬 일이다”라고 크리스천포스트에 소감을 전했다.

국제 복음주의자 연합의 인도주의적 부문인 월드 릴리프에는 약 4천명의 직원과 4만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다.

로스앤젤레스의 오르페움 극장(Orpheum Theatre)을 비롯 미국 곳곳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침례교 목사이자 킹 센터(The King Center) 회장인 버니스 킹(Bernice King) 박사, 비영리 인도주의 단체인 월드비전(World Vision)의 미국 대표 리치 스티어스(Rich Stearns),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자원봉사단체 소저너(Sojourners)의 대표이자 설립자 짐 월리스(Jim Wallis), 국제 라틴 복음주의 연합의 대표 가브리엘 살구에로(Gabriel Salguero) 목사, 윌로우크릭 커뮤니티교회(Willow Creek Community Church)의 설립자 린 하이벨

스(Lynne Hybels) 등이 연설자로 참여했다. 22일 회의에서 마지막 순서로 강연한 바우만은 “이 순수한 공동체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 나는 학생들, 교사들, 사업가들, 부모들, 예술가들, 사회 사업가들, 목사들, 시인들, 지지자들, 교수들에게 둘러 쌓여 있다. 정의를 가르치고, 정의를 위해 소통하며 행동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상처받기 쉬운 이들을 섬기라는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결의를 갖고 이 자리를 나설 사람들이 이처럼 많다는 점에 감동을 받고 마음이 겸허해졌다”고 말했다.

상처받기 쉬운, 억압받는 이들을 염려하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고무하고, 연결하는 운동인 이 회의는 4년마다 열린다.

23일 이른 시간, 회의 주최측은 당일 열린 “정의 영화 축제(Justice Film Festival)”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정의 공동체를 고무하기 위해 준비된 이 축제를 통해, 주목을 받고 있는 혹은 유명한 작가들의 필름을 상영했다. 싱어송라이터 조쉬 개럴스(Josh Garrels), 시인이자 음악가인 미카 본(Micah Bourmes), 락밴드 자스 오브클레이(Jars of Clay), 레게 음악과 팝 음악을 결합한 음악가 도미니크 발리(Dominic Balli)도 이 회의에 함께 했다.

월드릴리프는 5개 대륙을 비롯 세계의 최빈곤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4개 도시에서 난민, 망명자, 가석방자, 인신매매의 희생자, 여러 다른 이주민 약자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해외 출생자들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디 한 기자

# 1년에 500만명 전도한 페이스북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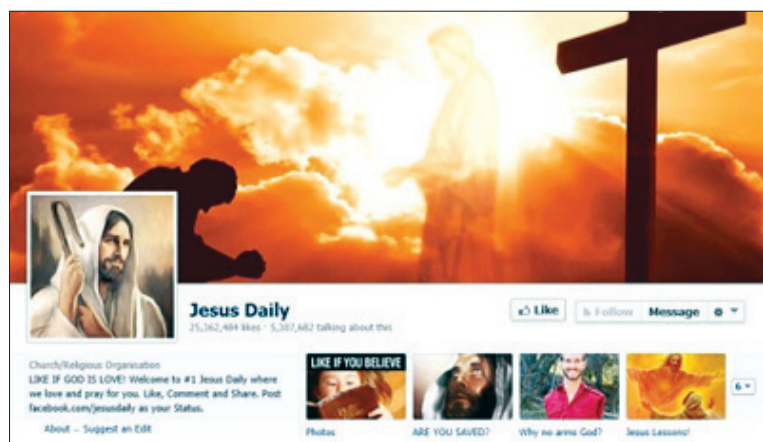
수백 명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계자들과 웹 제작자들에게서 극찬을 받은 ‘지저스 데일리’(Jesus Daily)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저스 데일리는 최근 미국에서 열린 국제기독교인론편회의 미디어 회의(Media Summit)에서 마지막으로 소개됐다. 공식적인 대화가 열리기 하루 전 진행된 이날 회의는, 기술 분야 종사자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지난 1년 동안 지저스 데일리 페이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500만명이 넘는 정도다. 이는 복음 전파의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해 왔다. 이는 또한 지난해 12월 페이스북 선정 ‘가장 많이 접속한 페이지(Most Engaged Page)’에도 올랐다. 12월 한 달 동안 송문자 수는 무려 3억2천만명이었다.

의사인 타보 박사가 파트타임으로 지저스 데일리 페이지를 편집 및 운영하고 있으며, 그의 사무실에 두 명의 스태프를 두고 있다. 프로젝트

를 위한 연간 예산은 약 3억2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2/3 이상이 페이스북 광고에 사용된다. 타보 박사는 자원봉사자인 ‘인터넷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저스 페이지 사용자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토론을 진행한다. 그가 이끌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무슬림·동성애 옹호론자 등도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인다. 특히 사이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중 75%가 해외 방문자들로서, 지난해 해외 선교에 크게 이바지했다. 지저스 페이지는 방문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약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아멘’으로 응답해 주세요”라고 말한다.

타보 박사는 “많은 방문자들이 이전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 보지 못했다. 이곳 미국에서조차도 그렇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거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를 못 가져본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지저스 데일리(Jesus Daily) 페이스북.

앞서가는 젊은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색이 갈라 필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00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주소: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 ‘한동대의 산파’, 김영애 권사 〈갈대상자〉 후 10년 만에 〈구름기둥〉

### “아슬아슬한 낭떠러지에 내려온, 밧줄 같은 은혜 답아”



기자간담회 중인 김영애 권사. ©두란노 제공

한동대 김영길 전 총장의 아내 김영애 권사가 신간 <구름기둥>을 출간하고, 지난 2월 27일 서울 서빙고동 은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 홍보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출범 초기부터 술한 고난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의 초기 10년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며 30만 독자에게 감동을 줬던, <갈대상자> 이후 10년 만의 작품이다.

<구름기둥>에는 최근 명예총장 추대를 둘러싼 논란부터 시작해 한동대학교 설립 초기부터 남편인 김영길 총장의 19년간 재임 시절을 담고 있다.

한동대학이라는 ‘광야에서 김영길 총장과 김영애 권사가 수없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체현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또 한동대학생·학부모·교수·후원자들의 증언이 곳곳에 실려 있다.

김영애 권사는 먼저 소감에 대해 “어색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과분하고 미안하다”며 “<갈대상자> 이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계심을 큐티노트 겸 일기로 작성하다 남편의 퇴임으로 마지막 짚을 찢고 10년 만에 <구름기둥>이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책 제목에 대해서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아기였을 때 그를 누인 바구니 <갈대상자>가 조국과 민족을 품고 이 시대 민족의 지도자가 될 한동인들을 상징했다면, <구름기둥>은 ‘내비게이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심을 표현했다”며 “나무 힘들었던 광야 길에서 격려와 위로, 학교와 관계 없는 분들의 1천원 한 구좌 운동과 중보기도 등 모든 도움들이 우리의 ‘구름기둥’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구름기둥’은 메추라기와 만나, 반석에서 터지는 생수와 불기둥 등 출애굽 이후 광야 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했다.

김 권사는 “<갈대상자>가 출애굽기라면, <구름기둥>은 신명기라고 할 수 있다”면서 “성화의 과정, 내면의 인격이 자라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이야기들을 담고 싶었다”고도 했다. ‘구름기둥’에 대해 “떨어지면 죽사할 듯 보이는 아슬아슬한 낭떠러지에서 내려온 밧줄과 같았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 표현하기도 했다.

김영애 권사는 “한동대가 이처럼 많은 핏박과 가난 속에 있지 않았다면 오늘날처럼 될 수는 없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우리는 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타락의 본성이 남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는 늘 저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 뜻밖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심을 체험했다”고 강조했다.

“고난의 공식은 같다, 숫자만 다를 뿐”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모든 고난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겪었던 길이고, 앞으로 후진들

이 걸어갈 길로 사람과 상황만 다를 뿐”이라며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불(火)을 허락하지만, 그 불의 온도는 각자가 타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신다”고 말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나 혼자만 겪는 고난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이겨내신다면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리라 믿는다”고도 했다.

<구름기둥>을 읽어야 하는 사람은 “인생 길을 걷는 모든 이들과 풍랑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각양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자신만의 ‘구름기둥’을 발견하셨으면 좋겠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쓰게 하신 이가 임하게 하실 것”이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하자 김영애 권사는 “지금은 도덕과 윤리가 파괴되고 모든 위계질서가 뒤죽박죽 되어버린 시대”라며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권위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청년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음을 회복하며 생령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간담회 막바지에는 남편인 김영길 전 총장이 참석해 아내를 격려하기도 했다. 특유의 ‘아이 러브 유, 갓 러브즈 유(I Love You, God Loves You)’를 외치며 등장한 김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 출간된 자신의 저서 <신트로피 드라마>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 전 총장은 “엔트로피는 결국 죽음으로 향하는 무질서와 혼란의 에너지를 말하는 반면, ‘신트로피’는 무너져 가는 이 혼란과 질서를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고 정직과 성실을 이뤄 내자는 운동”이라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모두 엔트로피를 신트로피로 바꾸는 에이전트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이는 영성·지성·인성·자연 환경 교육 등 전인교육을 추구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며 “지금은 학교에서 ‘진화론’만 배우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금 선언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운동을 펼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바로 이 신트로피 드라마를 위해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자 김영애 권사는 모태신앙으로 이화여대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고려대 행동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다 과학자인 남편을 만나 결혼 후 미국으로 건너가 연구를 계속했다.

1974년 남편의 회심을 계기로 자신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헌신의 삶을 결단하고, 1994년 한동대 총장이 되기로 결심한 남편을 내조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이대용 기자

## 교회 및 선교교회

<p><b>LA 지역</b></p> <p>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배 오전 6:20</p> <p><b>한천영 담임목사</b></p> <p><b>갈릴리션교회</b>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p>	<p>1부예배 오전 8:00 성인 EO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4부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p> <p><b>박헌성 담임목사</b></p> <p><b>나성열린문교회</b> 성령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p> <p>1925 Wilshire Blvd. LA / T. (213) 383-2600 (213) 413-1600 임시예배처소 3119W.6th. LA, CA 90020 bpoddoor.org</p>
<p>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월-토) 저녁 오후 7:30(화,목,금)</p> <p><b>엘리아 김 담임목사</b></p> <p><b>나눔과 섬김의 교회</b>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p> <p>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p>	<p>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p> <p><b>나성한인교회</b></p> <p>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p>
<p>1부예배 오전 7:45 EO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p> <p><b>진유철 담임목사</b></p> <p><b>나성순복음교회</b> 성령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 오전 6:30(화-금) 오전 10:30(수) 오전 6:30(토)</p> <p><b>정우성 담임목사</b></p> <p><b>남가주광염교회</b>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p> <p>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 598-0191</p>
<p>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p> <p><b>김광삼 담임목사</b></p> <p><b>나성제일교회</b>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2: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p> <p><b>김요섭 담임목사</b></p> <p><b>남가주리디머교회</b>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p> <p>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p>
<p>주일 예배 오전 11:00 삼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찬양예배 오후 1:45 E.M.예배 주일 오전 11:00</p> <p><b>이영 담임목사</b></p> <p><b>라성빌라델비아교회</b> 하나님 중심 생활 / 말씀 중심 생활 / 교회 중심 생활</p> <p>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p>	<p>주일예배 오전 9:00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목요찬양예배 : 목요일 오후 7시 30분</p> <p><b>김경렬 담임목사</b></p> <p><b>산타모니카한인교회</b> 죽도록 섬기는 교회</p> <p>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399-7949 / www.smkc.us</p>
<p><b>서건오 담임목사</b> 주일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청년부 : 주일 오후 1: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p> <p><b>새로남교회</b> 말씀과성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p> <p>3407 W. 6th St.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a.net</p>	<p><b>김성광 담임목사</b> 주일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2:00</p> <p><b>성재복음선교회</b> 은 성도가 성령과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하는 교회</p> <p>520 S. La Fayette Park pl. #415 LA, CA T. (213) 327-9200, T. (213) 598-9932</p>
<p><b>박승부 장로</b> 17,27,37,47 수료생 배움, 현재기 수료생 양성 중 - 수기치료/로션교사 양성 - 약품이나 기구없이 순간으로 각종질환 치료하는 의술</p> <p><b>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b></p> <p>2836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1-7273 / (213) 605.2928</p>	<p>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EOM예배 오전 10:00</p> <p><b>조인수 담임목사</b></p> <p><b>씨너지이드교회</b>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p> <p>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p>
<p><b>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b>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넛넷 진반) 음식 보조 푸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산부 메디칼</p> <p><b>요한 선교교회</b></p> <p>gka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p>	<p>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p> <p><b>김세환 담임목사</b></p> <p><b>엘에이연합감리교회</b>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p> <p>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p>
<p>1부예배 오전 8:00 김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p> <p><b>영생장로교회</b></p> <p>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p>	<p><b>김중호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b>예향선교교회</b></p> <p>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E-mail. baacdeew@hotmail.com</p>
<p><b>류종길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b>임마누엘선교교회</b> 초대교회와기정의회,성경학교,노니아,만민사제장교회</p> <p>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p>	<p>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b>신승훈 담임목사</b></p> <p><b>주님의 영광교회</b>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b>대표 김갑선 목사</b> 부설 : Naturo pathy Clinic(월-금) 전문의 213) 505-7067</p> <p><b>지구촌 농업선교회</b></p> <p>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p> <p><b>이명수 담임목사</b></p> <p><b>청운교회</b> 선교에 흠뻑 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b>민중기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b>충현선교교회</b> 말리서(Calling), 고치과(Healing), 기르메(Maturing), 맞선(Confronting)</p> <p>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p>	<p><b>곽부환 담임목사</b>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오전 6:00(토)</p> <p><b>한마음제자교회</b>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p> <p>2333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321-4433</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b>강지원 담임목사</b></p> <p><b>한우리장로교회</b>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p> <p>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p>	<p>1부예배 오전 8:00 EO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p> <p><b>김기섭 담임목사</b></p> <p><b>LA사랑의교회</b> 평신도를 키우고 이만21세를 위한 교회, 이민21세를 키우는 교회, 선교영광을 추구하는 교회</p> <p>51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 (323) 930-0011, (323) 935-0011 / www.LASarung.com</p>

## 목회자 꿈꾸는 소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화제

미국 프리스타일 스키 금메달리스트,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미국에 첫 금메달을 선사한 데이빗 와이즈 선수가 목회자가 되기를 꿈꾸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화제다. 올해 23세의 와이즈 선수는 남자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 경기에서 화려한 기술과 연기로 92.00을 기록, 이 종목에서 미국에 첫 금메달을 안기며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다. 이에 미 언론들이 앞다투어 와이즈에 관한 보도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그의 독실한 기독교 신앙도 함께 알려져 현지 교인들에게는 또다른 은혜가 되고 있다. 그는 NBC와의 인터뷰

에서 “경기에서 경쟁하는 운동 선수로서 신앙은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며 “나는 스키를 타고 있을 때에도 매주 주일에 교회에 있을 때와 같은 모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와이즈는 또한 자신의 꿈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물론 이 세상에는 추한 것들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했다. 손현정 기자

# 교회연합 선교교회

##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박해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선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사우스 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영어예배(EM) 오전 11:3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안병권** 담임목사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 986-9797 / ganachurch.hompage.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중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기대연합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EM 1부 9:45 / 2부 11:45  
중/고등예배 오전 11:45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45

**권영국**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의 세계복음화에 헌신하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강영석**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 515-1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문통(通)하여 만사형통합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15(EM) 청년부  
5부예배 오후 3:00(EM) 청년부

장애유아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세교부반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점심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최상훈** 담임목사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세리투스채플)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세리투스채플)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벨리채플)  
목요영성집회 오후 7:45 (다우니 채플)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벨리채플)

**최희정**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818) 363-5887 / 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필로우쉽)  
오후 12:00 (반찬)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 복음화 위해 합심해 기도하자



선교 보고를 전하는 이태형 몰도바 선교사.

위싱턴주 지역교회의 연합과 부흥, 회개를 외치며 선교지의 복음 전파와 선교사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위싱턴 주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대표 황선규 목사) 제 64차 정기기도 성회가 지난 20일 시애틀 지구촌교회(담임 김성수 목사) 열렸다.

이날 위싱턴주 각 교회에서 모인 목회자와 성도들은 고단과 고통을 넘어 지역 복음화와 열방을 향한 선교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 기도 모임에는 일본인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참석하며 미국과 한국, 일본의 영적 부흥과 화합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 참석자들은 세계 선교를 위해 위싱턴주의 영적 부흥을 위해 단일선교사와 후방 후원자들의 연합과 동역을 위해 △불신자 전도를 통한 중소교회의 부흥과 2세 교회의 부흥을 위해 △중증자들과 고통 받는 자들을 위해 등의 기도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

황선규 목사는 "위싱턴주 지역 중보기도자와 선교동역자들이 매달 한 번씩 함께 모여, 전 세계와 지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형제가 연합해 드리는 기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시는 사

역임으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자하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도회는 연합 찬양팀의 찬양에 이어 김상수 목사(웨더럴웨이 은광교회)가 설교했다.

김상수 목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자"고 독려했다.

이태형 몰도바 선교사는 선교보고를 통해 "지난 20년동안 교회를 짓고, 유치원, 병원 사역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며 "프랑스가 이제 미전도 종족이 되었을 정도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 유럽은 크리스천이 1퍼센트밖에 안되는 반면 이슬람은 10퍼센트로 성장했다"고 전해 기독교 선교의 시급함을 일깨웠다.

또한 위싱턴주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는 부대표로 섬겼던 나균용 목사가 은퇴하고 한국으로 사역을 이듬해에 따라 후임으로 김용문 목사(갈보리 교회)를 부대표로 선임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 미션퍼спек티브스 집중훈련 이민교회 선교열정 돋보여



퍼спек티브스 집중 훈련과정을 수료한 이들과 강사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세계기독교운동과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한 '선교한국 퍼спек티브스 집중훈련 과정'이 뉴욕지역 목회자를 대상으로 17일부터 21일까지 뉴욕총신교회에서 진행됐다.

퍼спек티브스(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는 성경, 역사, 문화, 전략 등 4가지 관점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미국세계선교센터(USCWM, U.S Center for World Mission) 랄프 윈터 박사 등이 중심이 되어 만든 국제적인 선교훈련 프로그램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 지금까지 영어권에서만 10만 명 이상이 수료했다.

한국에서는 선교한국에 의해 2000년 가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약 1만6천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등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선교훈련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미주에서는 뉴욕, 워싱턴DC 등 주요도시에서 GP, OMF, GAP, IMB, SEED 등의 선교단체들이 주최하고 선교한국 파트너스가 주관해 12주의 교육과정을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교육해오고 있다.

뉴욕에서 진행된 이번 퍼спек티브스 집중훈련 과정에는 뉴욕지역의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참여해 강의를 경청했으며, 캐나다 몬티리얼 등 뉴욕 외 지역에서도 선교회를 공부하기 위해 뉴욕을 찾는 등 이민교회의 선교열정을 실감할 수 있는 현상이었다. 훈련 과정에서는 성경적인 관점, 역사적인 관점, 문화적인 관점, 전략적인 관점 등 선교의 네 가지 입체적 관점을 집중 훈련해, 선교사나 선교사 후보생 및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선교에 있어 새로운 시각을 열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 형태로 소개해, 성경과 역사 안에서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했다.

교육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 형태로 소개해, 성경과 역사 안에서 살아

김대원 기자

### 세계 디아스포라교회

## 1세와 2세 함께 차세대 비전 꿈꾸다



해외한인교회 교육과 목회협의회 제 9차 애틀랜타대회.

‘해외 한인교회 교육과 목회협의회(The Council on Overseas Korean Churches for Education & Ministry, 회장 정영원 목사)’ 제 9차 애틀랜타 대회가 ‘디아스포라’ 제 9차 애틀랜타 대회가 ‘디아스포라 4:6-9’을 주제로 25일(화)부터 27일(목)까지 애틀랜타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에서 열렸다.

1998년 8월, 한국 제주도 이기풍 선교기념 센터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시작된 해외한인교회교육과목회협의회는 2년에 한 번씩 전세계를 돌며 대회를 열고, 700만 한인 디아스포라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사명을 확고하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선교적 연대와 한인교회 교육과 목회적 나눔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현재 회원교단으로는 미국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USA), 해외한인장로회(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oard), 미국개혁교회(Reformed Church in America), 캐나다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of Canada), 재일대학기독교회(The Korean Christian Church in Japan), 뉴질랜드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of Aotearoa New Zealand), 호주연합교회(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 대한예수교장로회(Presbyterian Church of Korea), 한국기독교장로회(Presbyterian Church of the Republic of Korea)가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미국장로교의 미국장로교 총회에서 활발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선배 목사, 최훈진 목사가 주제강사로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역사를 되짚고, 이민교회의 차세대 목회와 선교적 과제, 디아스포라의 신학을 실제적으로 나누게 된다. 또한 인도네시아 이윤규 선교사(내려놓음)의 저자가 집회강사로 나서 저녁 집회를 인도할 예정이다.

25일, 전 세계 곳곳에서 큰 기대와 설렘을

찾고 도착한 100여명의 선교사들과 교단 대표들, 목회자들은 개회예배에 이어 김선배 목사의 ‘세대를 이어가는 한인인민교회-미국장로교의 한인목회를 중심으로’를 제목으로 한 주제강연에 귀를 기울였다.

김선배 목사는 미국 한인 이민사를 간략하게 훑은 뒤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전국총회(NCKPC)의 시작과 발전과정, 개인적인 목회여정을 진솔하게 나눴다.

그는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의 첫 목회지는 1977년에 부임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수도 콜럼비아에 있는 콜롬비아한인연합장로교회였습니다. 척박한 땅을 갈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목회였지만 소명과 꿈에 가득 찬 개척목회였고, 미국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고고한 백인장로교 노회의 유일한 작은 유색인종 교회요 변두리 한인교회였지만 지금은 그 지역 노회의 우수한 교회로 인정받고 건강한 교회로 자리잡았습니다”라고 회고했다.

이어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총회 사역에 대해 “교회 개혁, 목회 리더십 훈련 그리고 한인 노회 설립과 조정 등 산적한 사역 업무를 총회 차원에서 수행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목회자 훈련과 멘토링, 목회자 네트워크이었다”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젊은 목회자들의 전국적인 네트워크인 ‘새시대목회연구원’ ‘학원도시목회연구원’ ‘다문화 목회연구원’ ‘개척교회 목회자 연구회’가 구성됐고, 오늘 미국장로교회 한인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 훌륭한 목회자들을 배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밝혔다. 또한 1세뿐 아니라 2세 신학생, 목회자 양성 훈련을 위한 ‘2세 목회자 네트워크와 컨퍼런스’를 시작해 지금까지 한인교회 뿐 아니라 미국장로교의 주류 교회들과 신학교, 특수전문사역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목회자들을 배출하게 된 것이 보람이라고 덧붙였다.

박현희 기자

##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미독립선언서 낭독한 교회

뉴욕교협은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이하 뉴욕평통)가 요청한 3월2일 주일예배를 3.1절 기념주일예배로 지키면서 통일염원을 위한 기도를 해달라는 내용을 뉴욕지역 교회들에 협조공문을 통해 전달하면서 삼일절의 중요성을 알렸다.

민주평통은 교회들을 향한 당부와 관련하여, “올해 삼일절을 맞아 통일염원의 날과 통일 학교의 강연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뉴욕교협 50여 만 동포들이 함께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면서 “이에 주일예배를 ‘조국 대한민국 통일 염원’이라는 주제로 드리고 삼일절 정신을 계승하고 통일을 위한 염원을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기를 요청드린다”고 알렸다. 민주평통은 이와함께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한인회와 각 단계에서 개최하는 3.1절 기념행사 때도 조국 대한민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는 사실도 함께 알리면서 “통일을 염원하는 열기가 뉴욕에서 크게 일어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미국문화 속에서 한국에서의 절기를 교회가 때마다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교회에서 흔히 갖는 교회연합 삼일절 기념예배를 뉴욕에서 잘 볼 수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에 뉴욕평통은 보다 한인교회들이 삼일절 등의 절기를 함께 지키고 한민족의 훌륭한 정신문화를 계승해 나갈 것을 요청한 것이다.

뉴욕평통의 이러한 요청 가운데 먼저 모범을 보인 교회가 있다. 뉴욕우리교회(담임 조원태 목사)는 지난 23일 주일예배를 삼일절 기념예배로 지키고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장문의 기미독립선언서를 함께 낭독했다. 7분 가량에 걸쳐 선언서 전문을 다 읽은 이유는 이민자들과 자녀들이 한국의 고귀한 순국선열의 정신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도들은 또 기미독립선언서 낭독 이후에 애국가를 제창한 후 대한독립 만세 삼창을 했다. 장년과 어린이, 중고등학생, EM권 청년까지 함께 모여 가운데 진행된 삼일절 기념 퍼포먼스는 태극기 물결로 장관을 이뤘다. 특히 어린이와 학생들이 태극기를 하나씩 들고 흔들며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모습은 함께 참석한 부모들에게도 감동을 줬다.

조원태 목사는 이날 주일 설교에서 어려움이 많은 이민자들의 삶의 현장은 마치 가시떨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본 모세의 자리와 같고, 이는 일제치하의 핍박을 받는 서러운 자리에서도 고귀한 정신으로 무장하고 세계에 영향을 준 삼일운동의 현장과 같다고 강조했다.

조원태 목사는 ‘삼일 함성이 하나님 음성입니다’(출3:1-12)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환경은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진숙한 통로”라면서 “모세가 소명을 받은 사건인 오늘 본문에서 떨기 나무는 태양열에 자연발화 돼 사라지는 연약함의 상징이다. 모세는 그 모습에 자기 신세를, 또 자기 민족의 처지를 투영했는지도 모르지만 떨기 나무는 곧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담겨있는 최고의 소품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원태 목사는 “내 인생에 대한 비판 속에서 마치 탈출구가 없을 것과 같은 막막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다. 삶 속에서 세미하게 찾아 오신다”면서 “1919년 3월1일은 우리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불꽃이라고 신앙고백을 하고 싶다. 나라를 빼앗기고 무단통치 이후 신앙의 자유마저 빼앗기는 암울한 현실 한복판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찾아 오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원 기자

### O.C./앨버틴 지역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한이대학원예배 오후 2:00

금요일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00  
영어장년부 오전 9:00/11: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521-0991 / F.(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562-691-0691, FAX:562-691-0698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청년)예배 오후 1:00

**손병렬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 오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5:30  
Youth 예배 오전10:30  
EM예배 오후 2:30

**박옥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수요기도 저녁 8:00 분당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허규담 담임목사**

**노르워크 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el: 562)802-4959, Cell: 714)308-7038  
E-mail:usa8291@gmail.com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오전 6:00 (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시30분  
중·고등부 오후 3시  
청년부 오후 3시

성경공부 (화) 오후 8시30분  
금요일아예배 오후 8시  
한국학교 (토) 오전 10

**방익수 담임목사**

**사랑의방주교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정복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92620  
T. (949)654-019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과 은사를 성도의 삶과 구원의 실로 삼으실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 (분당)  
2부예배 오전 10:00 (분당)  
3부예배 오전 12:30 (FC세움)

EM예배 오전 10:00 (FC세움)  
오후 12:30 (분당)  
수요일아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김민재 담임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 (분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cpc.org

주일예배 오전 10:45  
EM/영어예배 오후 12:45  
금요강화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영문예배 (수) 오후 7:30  
성명집회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엘바인 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92604  
T. (949)857-9425 / F.(949)857-9242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금요일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최상준 담임목사**

**엘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니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김삼도 목사

관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엘바인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949) 305-3951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 (화-금)  
오후 7:30  
오후 7:30

(매일 S,D,F, Power minister)

**지사른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사로 규합된 영혼구원과 해를 넘어 세상을 살리는 사명: 사랑과 사명을 감동시키는 주의 부르심을 믿고 인도하는 선교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6: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1부예배 오전 9:15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영명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영원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일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krcr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목사예배 오전 2:30  
월요일 선교학교 오후 7:30  
회중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일 성경학교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EM예배 오후 7:30

**목회 담당 앤드류 김 목사**  
**선교 담당 안근성 목사**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장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3부: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금)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 670-6700

결혼교실, 시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강을 건너 세례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샘길의 사랑들'이 되자

**박세록 대표**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재\$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미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 세계 최초의 캐거 미국 FDA에 의약품으로 인증 등록됨 일반 의약품 등록 번호(NDC No: 58912-2001)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Medical Product Name : Mirapharm-22**  
**FDA NDC Number : 58912-20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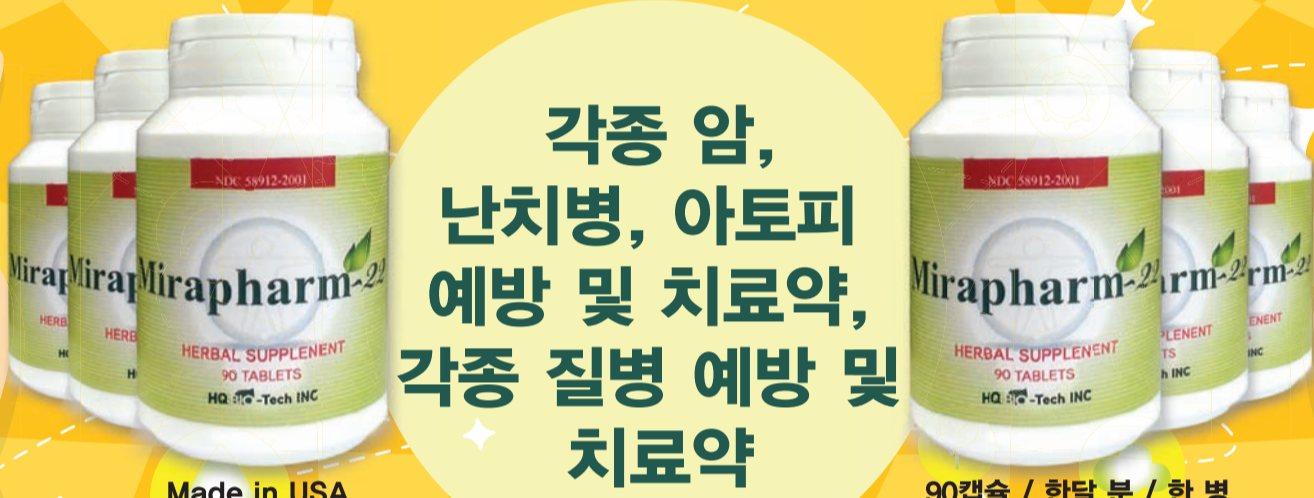
**Duns Number : 688502046**  
**Pin Number : cGfFh5Ec**

위 정보들은 미국 FDA로 부터 정식으로 부여받은 것들로  
제품 제조허가 번호, 제품명, 국제사업자 등록번호와 공장 설립허가 번호들입니다.

이로써 2013년 6월 12일 미라팜-22는 100% 천연물질이면서도 식품테스트에서 안전성이  
인증되어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인증서를 받았고, 그 이후 2013년 8월 1일에 미국 일반 의약품(NDC(OTC  
DRUG)으로 승인되어 OTC DRUG로서의 인증서를 받아 정식으로 미국 일반 의약품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약품 제조허가번호와 공장 설립허가번호 그리고 국제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국제사업자등록번호까지 획득해 합법적으로 제조와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 기적의 약 (Miracle Pharmacy) 미라팜-22 Mirapharm-22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예방 및 치료약,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약**

Made in USA

90캡슐 / 한달 분 / 한 병

**22세기형 최첨단 신약으로 탄생했습니다.**

100% 천연 유기물질로 만들었으며  
24년간의 연구와 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 14년간의 연구와 10년간의 임상 끝에 100% 천연 물질이면서 의약품으로 인증 받은 미라팜-22
- ◆ FDA에서 본 제품의 독성 및 기타 성분 분석 검사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미국 FDA에 의해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 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약 등록
- ◆ 친환경 천연유기물질을 생명공학 공법으로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면역 증강, 각종 질병 치료제
- ◆ 100% 천연유기물질 소재로 만들었기에 부작용의 염려가 없고 각종 난치병에도 많은 효험을 나타냄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월등히 뛰어나며 일반의약품(OTC Drug)으로 인증받은 첨단 의약품

갑상선 말기암 환자의 최근 체험사례



복용후 5일 - 11/5/2013    복용후 25일 - 11/25/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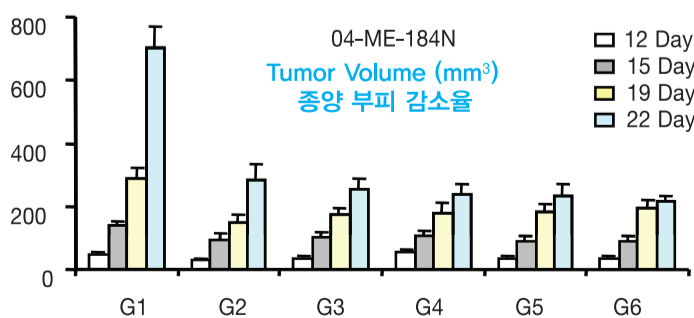
생후 5개월부터 28년된 아토피 환자의 치료 사례



복용전    복용후 99일

미라팜-22의 암 예방 및 치료제에 대한 전임상 테스트 확인 도표

최종일 - 투여 22일째



군 (mg/kg)	Control 무치료	Doxorubisin (2) 화학항암제	Mirapharm-22 (75) 미라팜-22	Mirapharm-22 (15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사전 예방처리
22일 째 (최종일)	704.6 ±67.2	285.6 ±50.6	251.9 ±36.3	235.3 ±34.6	232.1 ±38.5	214.2 ±20.5
22일째의 억제율 %	0	59.5	64.3	66.6	67.1	69.6
	G 1	G 2	G 3	G 4	G 5	G 6

키모테라피에 사용하는 화학요법 항암제보다 월등히 우수한 암 부위 감소율을 자랑하는 천연 치료제인 미라팜-22의 임상 결과에 대한 논문은 곧 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 “日, 이스라엘 정부 훈장 받은 독일 수상 본받길”

## 기독교계 중심 각계 33인, 3.1절 앞두고 ‘역사왜곡 저지’ 시국선언

한일기독교의원연맹과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KICA)가 제95주년 3.1절을 기념하며 각계 지도자들을 초청, 2월 28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여의도 레싱턴호텔 회의실에서 ‘일본의 역사왜곡 저지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기독교계를 주축으로 각계 인사들이 함께한 ‘33인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일본은 이웃 나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경화와 군사대국화를 노골화하면서 군국주의 망령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런 시도는 가깝게는 한일관계와 동북아 질서를 어지럽히고 넓게는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에 다름아니”라고 지적했다.



한일기독교의원연맹과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가 제 95주년 3.1절을 기념하여 '일본의 역사왜곡 저지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조찬간담회 사회는 장한일 원장(한국공정정책개발연구원)이 했고, 장상 WCC 공동의장이기도 했다. 김영진 한일기독교의원연맹 상임대표(NCCK 부회장)는 초청인사에서 먼저 “95년 전 우리의 선열들이 일제의 억압통치 하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피를 흘리면서 헌신했던 것을 마음에 생각한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당시 동아시아인들을 강제로 징집해 부역에 동원했던 사실을, 근대화 기념물

로 UN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고노 담화’와 A급 전범을 스스로 처단했던 ‘패전국 선언’을 백지화시키고, 이제는 군사대국화를 통한 군국주의 부활을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지구촌에 750만의 한인들이 진출해 있는데, 민족 문제 해결에는 함께하겠다는 뜻으로 15명의 해외 지도자들도 이 선언에 함께 동참했고, LA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는 같은 시간에 우리가 채택한

선언문으로 함께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계 인사 33인 시국선언문”을 UN과 미 의회와 주한미국대사관과 WCC 등 여러 기관에 전달할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국회에도 전달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동기부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원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은 “일본은 역사 청산을 옹골게 하려는 노력은 커녕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우리를 분노

케 한다. 위중한 시점에 각계의 주요 인사들이 한 곳에 모여 민족혼을 일깨우고 역사를 바르게 정리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 여긴다. 일본의 불명치하고 도를 넘는 비이성적인 처사에 큰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이만열 전 군사편찬위원장은 3.1운동의 의의에 대해 “첫번째는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무장투쟁이 강화됐다.

봉오동·청산리 전투가 일어나게 된 것도 이 영향이 크다. 두번째는 민주주의 국가의 토대가 이룩됐다는 점이다. 독립을 요구함과 함께 민주적 정부에 대한 기원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김상근 민주평통 전 수석부장은 “일본이 국가 간 무력적 긴장을 키우고 동아시아인들의 증오심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일본은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헌신해야 한다. 이것은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생명을 앗아간 과거사에 대한 속죄다. 평화와 정의는 영원한 시대 정신이다. 일본도 이 시대 지구에 살고 있는 민족으로서 시대정신을 망각하지 말고 평화를 이뤄가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독일은 나치 시대에 저지른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70년이 넘도록 속죄를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전 독일 수상에게 감사의 뜻으로 훈장까지 수여했다. 저는 (일본이 독일처럼 속죄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통령과 일제의 침략으로 고통 당한 여러 국가의 수장이 일본 수상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태진 기자

## 성결 교단, 교단 연합 큰 걸음 뗐다

### 3월 16일 ‘제1회 성결인의 대회’ 열려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더화이트 베일에서 성결교단의 연합체 한성연 ‘2014 성결인 대회’ 조직 구성 및 지도자대회가 열렸다. 성결교회의 교단 연합운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2014 성결인’ 지도자 대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예수교 대한성결교회(예성)·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교회(나성)의 연합단체인 한국성결교회연합회(한성연)가 25일 서울 서초동 더화이트베일에서 ‘2014년 성결인의 대회’ 조직 구성 및 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국내에 성결교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민족 복음화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서 성결인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제1회 성결인의 대회’는 오는 3월 16일 오후 4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서울 영등포 신길성결교회(담임 이신용 목사)에서 ‘성결의 복음으로 이 땅에 회복을(수 3:5)’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한성연은 이 대회를 약 400개 교회 5천 명 참여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제1회 성결인의 대회’는 성결교단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취지로 기획됐다. 한성연은 이날 조직 구성을 통해 제4회 임원진을 선임했다. 대표회장에 는 나세웅 목사, 공동 회장에 조일래 목사, 한기동 목사, 공동부회장은 이신용 목사, 이영식 목사, 홍경중 장로, 이종복 목사, 이철구 장로 등이다.

조일래 목사(기성 총회장)는 이날 설교에서 “성결교회는 예수 믿고 중생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 뜻을 따라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교단”이라며 “오직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성결케 될 수 있다. 성결교인답게 우리가 먼저 거룩해지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성결교회는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정민 목사(예성 서기)는 ‘성도들의 성결성 회복’을, 이필남 권사(기성 여전도회전국연합회장)는 ‘한성연의 연합’을, 양영호 목사(나성 선교국장)가 ‘성결인의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특별기도했다. 나성 감독인 한기동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동운 기자

## 때로는 등대처럼 빛으로 때로는 맛을 내는 소금으로

### 한국외항선교회와 40년 외길 걸은 최기만 목사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1974년 7월 한국외항선교회의 목사, 선교사, 장로들은 인천항에 정박하던 유고슬라비아 상선 빅토리아호에 승선해 기독교에 관심 있는 선원들과 예배를 드리고 전도 팸플릿을 전했다. 130년 전 우리나라가 서구 선교사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인 인천항이 ‘복음의 수출항’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 때부터 40년 간 한국교회 발전과 함께 성장한 한국외항선교회는 지금까지 153만여 명의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4백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 3백여 개 교회를 개척하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창립 때부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한 최기만 목사가 있었다. 그는 40년 사역을 한 마디로 표현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전 15:10)”라고 고백했다.

최 목사는 6.25 전쟁 때 친형과 함께 북한을 떠나 남한에 왔다. 육군수도사단 정보처 유격대 소대장이었던 형이 동해에서 전사한 후 고아가 된 그는 학도병으로 19세 때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사선을 넘나드는 가운데 당시 육군제일야전병원 간호장교 유맹단 중위의 전도(요3장16절, 10장10

절)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주님의 종’으로 삶을 드리기로 결심한 것은 그와 같은 전쟁 고아들과 과부들이 극심한 가난과 의지할 데 없이 방황하는 모습을 접하면서였다. 마치 목자 없이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같아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낀 그는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 먹었다. 1952년 부산 피난 시절 서울중학교를 다니다 이듬해 대전 서울중학교고등학교에 복학했고,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한남대학교의 전신인 대전대학교 기독교학을 마쳤다. 이후 대전 제일장로교회 강사로 온 한경직 목사의 조언으로 1959년 숭실대 철학과를 편입학 한 후 졸업했다.

1960년 12월 그는 서울 영락교회 창립 기념 부흥사경회에서 아프가니스탄 초대 선교사 크리스티 윌슨 박사의 설교를 듣고 성령 역사를 체험한 후 선교사의 길로 가기로 서원했다. 아내와 두 딸을 한국에 두고 1965년 홀로 중동 자비랑선교사로 떠나 1967년까지 이란 테헤란대학교에서 언어공부를 하며 파키스탄, 인도, 터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 순회사역을 했다. 귀국 후 한경직 목사의 권유로 한국외항선교회 개척에 참여해 총무, 사무총장, 상임회장 등을

거치며 일평생 항만선교 및 해외선교라는 외길을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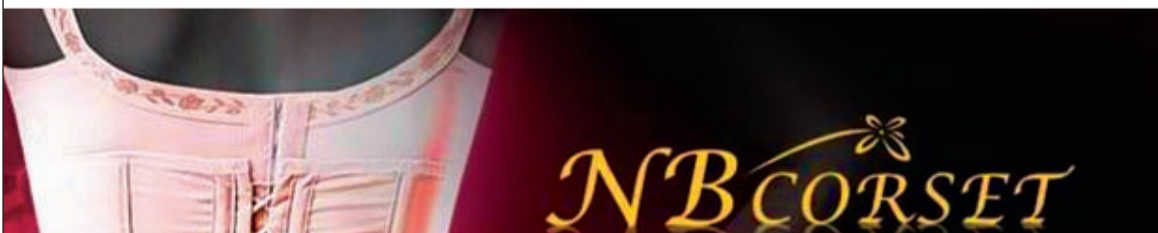
최기만 목사는 “사역의 길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며 “또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한경직 목사님, 감사한 목사님 등의 절대적인 헌신과 애국심이 지금까지 제가 열정을 가지고 선교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외항선교회는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한 때 창립돼 한국교회와 함께 자랐다”며 “선교회 책임을 맡은 후 △교회와 더불어 하는 선교 △전인구원적 사역 △헌신된 사역자를 통한 사역 등 세 가지로 지표로 삼아 달려왔다”고 밝혔다. 특히 처음부터 한국교회에 의해 세워져, 한국교회의 지원을 받으며 자리잡은 만큼 선교의 핵심 주제인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집중하며, 초교파 연합운동의 본을 보여왔다.

또 한국 사회가 외항선원에 대해 무관심하던 1970년대, 외항선원들의 복지와 현실적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복음전도와 함께 전인구원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펼쳤다. 이를 위해 인천, 부산, 군산, 울산, 광양, 포항, 제주, 평택 지부를 설립했고, 해외 지부를 설립해 타문화권 선교 기지를 구축했다.

이지희 기자

#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깍시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걸작품**입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깍시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깍시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 ###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은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 ###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의 인체에 완벽한 섬유+세계 특허 이중 지퍼사용 한 식약처에 의로기기로 등록된 옷.

**NB CORSET** Tel: 323.316.6815  
WWW.nbcorset.co.kr 3456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액 검사 \*체질 검사

# '한반도 정세와 통일기반 구축방안' 통일전략 세미나 열려

RFC 자유조선방송은 27일 프레스 센터에서 '한반도 정세와 통일기반 구축방안'을 주제로 통일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통일한국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대격변의 시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물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영환 북한 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북한체제가 오래 가지 못하고 붕괴될 것이며 연이어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 전망이 각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 체제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 전망에 대해 ▲김정은의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으며 권위를 세우고 권력 기반을 세울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함 ▲김정은의 경험 미숙, 판단력 미숙을 보완해 줄 대표적인 멘토 세 사람 중 장성택, 이영호는 죽고 김경희는 중병에 걸려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 ▲장성택을 부드럽게 2선으로 후퇴시키거나 자연스럽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거칠게 숙청해야 할 만큼 북

한의 권력체계가 안정되지 않음 ▲중국을 북한의 3대 세습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3차 핵실험 이후 북한과의 거리를 두고 있는데 원래 허약한 북한체제가 중국의 충분한 지지와 보호를 받지 못해 더욱 허약해졌음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의 어린 새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은 낮을 수밖에 없으며 그 때문에 어떤 우발적 사건도 대형 소요로 확대될 가능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체제가 몇 년 안에 붕괴될 것이라는 확실한 말은 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점점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며 "지금 우리는 북한체제의 붕괴와 통일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신장민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통일은 대박"이라며 "거시경제적 구도에서 통일비용은 전반적으로 통일 후 10년 기간 남측 GDP의 7% 내외이다. 그런데 이득은 여러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놓고 보아도, 같은 10년 기간에 남한 측만 별도로 따져본다 하여도 매년 11% 내외의 획기적



RFC 자유조선방송이 '한반도 정세와 통일기반 구축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인 경제성장을 얻어 낼 수가 있다. 이 부분만 놓고 보아도 대박"이라고 밝혔다.

신 명예교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정책을 쓸 것인가에 대해 ▲통일 후 10년의 남북소득조정기간에는 남북을 경제분야에 한하여 분리 체계를 갖추고, 북측은 별도로 계획경제의 틀을 만들어 효율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낸다 ▲통일 후 10년간은 군사비 지출을 GDP의 1% 선에 머물러야 한다 ▲북측의 경제성장에 소요되는 일체의 실물자본은 모두 남측 산업에서 직접 생산 공급한

수립과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염 원장은 "통일은 화해·협력의 축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통일 황아리'를 만든다고 통일준비가 되는 것도 아니"라며 "그보다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신장하고 기아의 고통을 덜어주고,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재정 건전성과 탄력성을 높여나가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올바른 국가전략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백 자유조선방송 대표는 통일을 위한 한국사회의 과제에 대해 "통일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한국의 정치역량과 경제역량을 갖추고 국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통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을 확보하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과 한반도 통일 시대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민 기자

## 교회세습반대 등 깨끗한 총회운동 시행하겠다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사장 홍정길)이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기윤실은 2011년부터 특정 담론이나, 조직 개편에 따라 운동 방향이 자주 바뀌지 않고, 지속 가능한 형태를 갖도록 크게 3대 운동 방향으로 '정치윤리운동', '교회신뢰운동', '사회정치윤리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윤실은 25일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에서 '좁은 길을 걷는 기쁨'이란 주제로 회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홍정길 이사장의 사회로 임성빈 공동대표의 개회기도, 조제호 사무처장의 '2013년도 사업 보고 및 재정 보고'와 '2014년도 사업 계획 보고 및 예산 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윤실은 2014년도 사업개요로 ▲자발적 불편 운동, ▲기윤실포럼, ▲깨끗한 총회운동, ▲교회의 사회적 책임 운동, ▲기윤실 청년 TNA(Talk & Action), ▲64 지방선거 운동 등 6대 사업을 발표했다.

'자발적 불편운동'의 취지는 크리스천들이 먼저 이웃과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 작은 것부터 불편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윤실은 개인과 교회가 집중해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개발해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기윤실 포럼'은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기윤실 포럼 운영위를 구성해 매월 주제

를 선정한다. 해당 주제의 전문가 및 실무자를 초대해 발제, 토론, 질의응답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깨끗한 총회운동'은 금권선거 근절을 위한 법 개정 및 교계 선거현실을 성도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이다.

기윤실은 교회세습 반대운동, 기독교 자살 예방운동 등을 비롯해 토론회 및 포럼 개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공명선거 서약 운동 등을 시행하려고 한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 운동'은 교회 부교역자 및 직원 인권 문제와 관련한 사업이다. 기윤실은 교회가 공적 조직으로 신뢰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 내 사역자와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64 지방선거운동'은 선거를 맞아 건전한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기독교 내 일부 세력의 그릇된 정치개입을 견제하기 위한 활동이다.

'기윤실 청년 TNA(Talk & Action)'는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청년 모임이다. 기윤실은 이 모임을 통해 세상과 구별돼 살아가는 청년 리더들을 발굴하며, 기윤실 청년 운동이 활성화되도록 도울 예정이다.

사업보고 등 회원총회 후에는, 손봉호 자문위원장(고신대 석좌교수)이 '좁은 길을 걷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신년 강연을 했다.

이동윤 기자

## '인터넷 예배' 드리는 교인들, '그리스도의 몸' 일까?

라이프웨어리서치 소장이자 교회성장 연구가인 톰 레이너(Tom S. Rainer) 박사는 25일(현지시간) 크리스천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에서 최근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교회(digital church)'에 관한 6가지 이슈를 제시했다.

레이너 박사는 글의 서두에서 "나는 디지털 교회를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언급하고 싶다. 내가 말하는 디지털 교회는 인터넷을 통해 교회에 접근할 수 있는 교회 웹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 도구를 훈련하는 열심 등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는 일대일로 사람을 만나는 대신, 온라인을 후원의 중요한 일부로 보는 교회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디지털 교회 참석자'들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 이들은 온라인 소그룹의 한 형태에 속해 있을 수 있다. 또 인터넷을 통해 다른 이들을 목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교회 재정도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일부 교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의 통합적인 참여자(integral participants)로 본다. 일부 작지만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은 이들을 회원으로 보충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 역시 디지털 교회 참석자들이 비록 온전한 회원(교인) 상태가 아니더라도, 이들을 교회 사역의 확장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은 일시적이지 않으며,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일을 계속 목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전역을 비롯해 해외에 있는 목사

들 및 다른 교회 지도자들과 이 주제와 관련해 대화하면서 정리한 중요한 이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디지털 교회 참석자들의 상태와 관련해 활발한 논의들이 있다. 디지털 교회 참석자들의 교회론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들이 진정 교회의 일부인가? 교회에 나와서 연합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은가? 이들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하는가?

2. 많은 교회들이 '더불어·함께' 디지털 교회에 대한 접근을 활용하고 있다. 이 교회에는 예배가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만나는 소그룹 모임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또한 디지털 교회 참석자들을 포함한 확장된 사역을 갖고 있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 전 세계에 흩어진 군인들을 위한 디지털 예배를 통해 특별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나에게 전해 주었다. 그러나 온전히 디지털교회만 갖고 있는 경우는 소수였다.

3. 디지털 교회 운동은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내가 제공하는 정보는 일회적일 수 있다. 그러나 라이프웨어리서치에서 앞으로에 대한 좋은 정

보들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 난 여전히 이 운동이 성장하고 정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4. 교회 지도자들은 디지털 교회에 대한 의미있는 통계를 발견하기 위해 치열하게 가고 있다. 페이지뷰 혹은 순방자 등이 사역의 효과와 관련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디지털 교회 참석자들의 헌금은 사역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의미가 될 수 있을까?

5. 많은 디지털 교회 참석자들은 신실한 기부자이다. 나는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디지털 교회 참석자들에게서 받은 재정 지원에 대해 듣고 놀랐다. 이를 통해 교회가 디지털 교회 참석자들과의 연합에 힘쓰는 노력과 이들의 재정적 지원이 비례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6. 디지털 교회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몇 달 동안 나는 디지털 교회에 대해서 더 알아볼 것이다. 현재 나는 디지털 교회가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운동은 (좋은 나쁜) 향후 몇 년 동안 전 세계에 걸쳐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이 될 것이다. 강혜진 기자

##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라, 김준연, 고승희, 민준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만규 편집국장 : 토마스 탕  
교문번호 : 정찬용  
지 사 방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산타페 언어·문화 교육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부설)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926.1023 | Fax 562.926.1025 | office@ptsa.edu www.ptsa.edu

## ESL 과정

산타페 언어·문화교육원이 속한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TSA)는 거주교육국(BPPE) 인가기관, 성서대학협의회(ABHE) 정회원, 신학대학원협의회(ATS) 준회원 학교로 I-20 Form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F-1 Visa를 위한 I-20 Form 정식 발급!!

- ✓ 원어민감사료만 모든 수업 진행.
- ✓ 담당 교수제를 통한 철저한 학습관리.
- ✓ 다양한 어학프로그램 및 시설.
- ✓ Conversation Partner 프로그램을 통한 일상회화 집중 향상.
- ✓ ESL 과정 수료 우수 졸업자 Internship 소개.

- 자유로운 수업 선택 : 주간 종합반, 야간 종합반, 주중 집중 종합반, 단과반으로 구성.
- ★ 산타페 언어·문화교육원 ESL 과정은 전세계 130여 개 캠퍼스, 35,000여 명의 수강생을 확보하고 있는 'English Miracle'의 과학적 영어어학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 영어로 배우는 스페니쉬 강좌도 있습니다. 별도문의

문의 전화 : 562-926-1023 Director 강우중 교수 (wikang@ptsa.edu)

## 8주 완성 웹사이트 제작과정

워드프레스보다 쉬운 XpressEngine (XE보드, 구 제로보드)

초보자도 만들수 있는 쉬운 웹사이트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웹사이트 제작을 위한 포토샵 CS6에서 배너 만들기 제작 과정 포함!!

- ✓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픈소스를 적용하여 공개적으로 프로젝트를 운용함으로써 누구나 사용하고 누구나 개발에 참여,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웹사이트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한글을 사용하여 한국인에게 Word Press보다 훨씬 편하고 결과물이 만족스럽습니다. 목회자, 전도사, 신학생, 편집 디자이너, 일반인 환영!!

★ 지난 1월 21일 '두 시간만에 끝내는 웹사이트 제작' 공개강연에 참석해 주신 분들 중 현재 3분이 공개강연만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하셨습니다. 상담: mermaidk@naver.com

- Photoshop CS6 / Dreamweaver CS5 (CSS Style, HTML 코드 강화) Flash CS5 (애니메이션, 액션스크립 실행) 강좌 별도문의

상담 전화 : 714-576-0901, 213-909-2371

<서승원 박사 특별 기고>

### 아가페와 필리아(5)

6. 요 21:15-17에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하신 이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양을 먹이는 것”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에게 바로 이러한 상관관계를 강조하시고 더 나아가 그로 하여금 이것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보여진다. 다시 말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양떼에 대한 사랑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은 곧 양떼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점을 깨우쳐주시고 강조하시기 위함이다. 말을 바꾸면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나의 양떼를 사랑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내 양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도 내 목숨을 나의 양떼를 위해서 버려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같은 요한복음 10:11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말씀하신 후에 다시 15절에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관시켜 생각하면 보다 분명해진다. 요한 1서 저자가 3:16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 양떼”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형제”가 되기 때문

이다.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그 형제들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비단 베드로에게만 해당된다고 보기는 목회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함을 받은 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형제들을 위하여 살 의무가 있다. 특히 먼저 믿는 자들은 나중 믿는 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의무가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다.

#### 7. 나오는 말

위에서 “아가페”와 “필리아”의 구별은 성경적이 아니며, 더 나아가 이러한 구별을 요 21:15-17의 해석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본문의 메시지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오랫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잘못된 견해와 해석을 되풀이 해온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원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인가?

성경을 깊이 있게 그리고 학문적으로 연구하려면 히브리어와 희랍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주경신학 즉 신약과 구약을 전공하는 사람에게 왜냐하면 구약이 히브리어로 그리고 신약이 희랍어로 쓰였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동양사상을 전공한다면 사서삼경을 원문 즉 한문으로 읽지 못한다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구약을 전공한다면 히브리어를 잘 모르고 신



서승원 박사  
바이블아카데미 원장

약을 전공한다면 히랍어를 잘 모르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구약을 전공하면서도 히브리어 성경을 잘 읽지 못하고 신약을 전공하면서도 히랍어로 성경을 잘 못 읽는 경우가 허다하다.

목회자들의 경우는 어떤가? 전공자들도 잘 알지 못하는 히브리어와 희랍어에 대한 지식을 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신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히브리어와 희랍어를 공부했다 하더라도 원문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 힘들다. 드물기는 하지만 실사 그런 정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목회를 하면서 그 실력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문을 못 읽는다고 해서 원문의 정확한 뜻과 뉘앙스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길은 좋은 주석서들을 참고하는 것이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기 주석서 같은 것은 안 읽는다고 잘라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만큼 성경을 잘 안다는 뜻일 것이다.

실제로 깊이도 없고 그래서 도움이 안 되는 주석서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훌륭한 주석서들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평생을 성경을 연구해 온 사람들이 주석서 하나를 쓰는데 10년 이상 걸린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동일한 구절에 대한 해석이 주석서마다 다르다는 데 있다. 따라서 어떤 구절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내리려면 적어도 3-5권 정도의 주석서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바람직하다.

물론 설교준비를 하는 데 너무 주석서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이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다. 메시지를 올바르게 전하려면 설교자가 그 메시지가 담긴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좋은 주석서들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기도하며 읽고, 읽으며 기도해야 한다. 이런 작업이 없이 주석서만 읽고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학문적인 깊이는 있을지 모르나 너무 딱딱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바로 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주석서들을 참고하지 않을 경우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더욱 곤란한 것은 주석서들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도 하지 않으면서 남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대로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

이 요 21:15-17을 잘못 해석해온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목회자들이 설교 전에 깊이 있고 권위 있는 주석서를 한두 권만 보았다더라도 그런 실수는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예를 또 하나 든다면 로고스와 레마의 구별이다. 요즘은 목사님들 중에 로고스는 보통 말씀이고 레마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끔 듣는다. 그런데 이러한 구별은 성경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성경에 없는 이런 구별을 설교 중에 반복하는 것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다. 설교 중에 본문과 밀접한 연관이 없는 데도 굳이 히브리어나 희랍어를 말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하려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생각에서 일 것이다. 이런 부질없는 일에 신경을 쓰고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묵상하고 주석서들을 읽는데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석서들을 볼 필요가 없을 만큼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고전 8:2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라는 말씀을, 그리고 남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은 행 17:11 “베뢰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라는 말씀을 읽고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끝>

## <3단계 영어> Three-Level English Education(33)

### English Beginning Level (초급영어 33회)

How many days do you work a week?  
당신은 일주일에 며칠을 일하나요?  
I work 5 days a week.  
나는 일주일에 다섯을 일합니다.  
I work on Monday.  
나는 월요일에 일합니다.  
I work on Tuesday.  
나는 화요일에 일합니다.  
I work on Wednesday.  
나는 수요일에 일합니다.  
I work on Thursday.  
나는 목요일에 일합니다.



배효식 교수  
미국침례신학교(ABSW)

I work on Friday.  
나는 금요일에 일합니다.  
I don't work on Saturday and Sunday.  
나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 English Intermediate Level (중급영어 33회)

Three days later, Mary, the mother of Jesus was at the wedding feast in the village of Cana in Galilee.

Jesus and his disciples had also been invited and were there.

There Jesus made water into wine.

This was the first miracle Jesus performed.

사흘 후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마을의 결혼 잔치에 갔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역시 거기에 갔다.

거기에서 예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것이 예수가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었다.

### English High Level (고급영어 33회)

John Bunyan was an English Christian Writer and Preacher.

He was very famous for writing The Pilgrim's Progress.

In the Church of England, he is remembered with a Lesser Festival on the 30th of August.

He was born on the 28th of November, 1628 and died on the 31st of August, 1688.

존 번연은 기독교 문학 작가이며 목사였다.

그는 천로역정(수레자의 전진)을 써서 유명해졌다.

영국 교회에서는 8월 30일에 작은 축제를 열어 그를 기념한다.

그는 1628년 11월 28일에 태어나서 1688년 8월 31일에 세상을 떠났다.

<계속>

# 여드름, 성공률 99%

##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원장 류재규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 경산 한의과대학 교수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물 2층) LA, CA 90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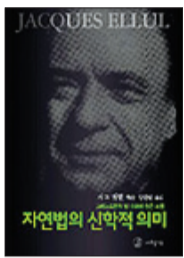
# 북새통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추천

자연법의 신학적 의미  
자크 엘릴 | 대장간 | 206쪽

만족을 상실한 시대, 원하는 것을 얻고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우리는 선부른 허영심으로 채우려 한다. 저자는 이에 대해 자신이 똥똥하건, 키가 작건, 인간관계가 좋건 나쁘건, 다른 이의 평가가 아닌 본인 스스로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존귀함을 누리라고 제시한다.



가이오의 축복  
서심정 | 두란노

단순히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복음의 진수를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보여준다. 저자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에게 심어 놓으신 최고의 축복을 찾으려 노력하며, 삶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길을 안내한다. 성경적 축복관을 누리려는 이들의 지침서.



그림과 이야기로 시작하는 처음 성경  
티마 포트너 | 주니어RHK

방대한 신·구약 성경 중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 스물여섯 편을 뽑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 정리하였다. 성경을 막 알기 시작한 4-7세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읽어 주거나, 매번 성경 읽기에 실패하는 어린이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내 인생을 바꾼 31일 성경통독  
이대희 | 브니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체험하는 성경 통독'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모세오경만 반복하다 포기하지 말고, 매일 질문에 답하면서 31일 만에 성경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독할 때, 매일 똑같은 분량을 정하지 말라고도 조언한다.



### REVIEW

## '자기계발의 대가' 공병호 소장, 성경에서 답을 찾다

자신의 이름이 곧 '브랜드'였던 사람이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시인하고, 100권이 넘는 자신의 책이 아니라 '단 한 권의 책'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경제경영과 자기계발을 거쳐 고전강독으로 나아갔던 공병호 소장은, 돌고 돌아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느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담아 <공병호의 성경공부>를 펴냈다. 이제 예수님과 성경에 대한 공부에만 집중하고자 한다는 그를 만나, '시련에 들 만한 질문들'을 던져주던 저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진짜 진리입니다. 저는 진리를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제 아이들이나

일반인들은 저처럼 공부할 시간이 없을테니,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서 기독교의 핵심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책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세상의 행복'은 일시적,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성경에 이끌린 계기가 있나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지 못하면 진짜 행복해지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높은 지위나 부(富)는 인간이 노력해서 찾을 수 있겠지만 진짜 행복에는 다가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진짜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한 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대부분 세상적인 행복은 추구하는 기간이 고되고 느끼는 기간은 짧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에 비해 인간적인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내면 세계의 진리에 대한 욕망이 강합니다. 진리는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절대적인 것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는(

깊은 학문이 그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자기계발의 전도사' 로 불리던 분이신데, 이 책을 자기계발에 대한 '자기부정' 내지는 '한계 시인' 으로 봐도 될까요.

"모든 자기계발에는 기본적 테크닉이나 틀이 있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탈이 약하면 그 위에 쌓은 테크닉이나 틀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 펀더멘탈이 바로 신앙입니다. 인생에 목적이 없을 때 삶이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은 목표와 목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지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잠 22:4)'이라고 했듯, 본인이 신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는 것은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제게는 모태신앙이던 친구들이 많았지만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했

던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잘 믿는 분들이 주위에 많았지만, 결국 혼자 결정해서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분이 마음문을 여는 건 별도의 과제이고, 저는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 쓴 큰 요인 중 하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독자들 중에서 책을 읽고 마음을 여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강연을 할 기회가 있으면 젊은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요. 과외시키고 다 좋지만, 그건 부분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는 좋은 신앙을 물려주는 것,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요. 삶의 지혜라고 할까요.

>> 17면에 계속

<p><b>세종 송보감</b> "춤추는 당노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p>	<p><b>뇌보감 골드</b>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p>	<p><b>高麗 발효삼</b> "항암 효과, 기력향상, 원기회복" "고려대학교, 액츠 생명연구 개발"</p>	<p><b>세종 요로청보감</b>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p>	<p><b>퍼스트레이디</b> "여성건강, 생리활성" "불가리아장미오일 캡슐"</p>
<p><b>Biotech SEJONGBIOTECH, INC 문의 : 213-383-8899 www.sejongbiotech.us</b></p>				
<p><b>판매처</b> 코리아타운 세종바이오텍 엘에이지사 (월서와 버질길 복음방송2층, 213-383-8899) 가주건강종합백화점 (한남체인건너편 천중산상점, 213-388-1234) 비타민 아울렛 (야세마켓 건너편, 213-382-1252) 글렌데일 한국약국 (글렌데일 한국마켓 내, 818-637-7708) 세리토스 웰빙건강&amp;선물 (세리토스 시온마켓내, 562-403-0282) 부에나팍 네이처영양센터 (부에나팍 한남체인내, 714-690-0120) 샌디에고 굿모닝약국 (레이시온로드 교차로 스타벅스커피숍내, 858-268-1660)</p>				

**초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되는 분

**미용침** 배배는 숙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T: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16면에 이어서

이걸 누군가가 이야기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올바른가요. 물론 선택은 본인의 문제입니다.”

**자기계발서 작가의 관점에서 성경에 대해 기록했다**

-읽어 보니, 성경공부보다는 자기계발서적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자기계발서 작가의 관점에서 성경에 대해 썼지요. 앞으로도 ‘데토릭’을 쓰진 않고, 하나님에 대해 정리해서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제 색깔에 맞게 글을 써야지요. 많은 목사님들이 C. S. 루이스 책을 권하셔서 읽어봤는데, 저와는 공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저는 오소독스(orthodox-정통)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편입니다. 신학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알아간다는 건 사회과학 공부와 같습니다. 많은 분

겠네요.

“이번 책은 확실히 ‘타게팅’돼 있습니다. 성경이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초신자들이 필요한 부분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책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정리했고, 그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삶의 어떤 부분에서 힘든 사람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찾아 읽으면 됩니다. 무엇보다 바쁜 자녀들에게 예수를 빨리 알리기 위해 제가 대신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썼습니다. 제가 원래 좀 용감합니다(웃음). 이제까지 총 107권의 책을 냈는데, 늘 그랬습니다. 이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주위의 이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신학공부만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의 관점과 제 관점은 다름이니깐요. <공병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공병호가 만난 성경>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쓸 것입니다.

믿고 나서 근본적으로는 성경적 시각을 받아들이되, 세부적인 완성은 자기개발적 테크닉과 아웃라인으로 하자. 둘은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

**좌선·단전 등으로 바꿀 순 없어**

-소장님처럼 늘 자기를 개혁하려 하고 하루종일 바쁘게 사시는 분도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지요.

“모든 인간은 죄인 아닌가요(웃음)? 저는 마더 테레사도, 유명한 목회자라도, 교황도, 결국 사람은 오십 보 백 보라고 봅니다. 그러니 목회자나 교황을 너무 숭배하면 부패할 수밖에요. 사람은 본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죄성이 너무나 강해요. 저도 늘 제가 죄인인 걸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공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목회자들의 실족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람이 본래 그런 걸 어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을 너무나 아쉽게 보게 되었

**기독교 귀의한 이유?**

**다른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든 것**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왜 불교나 도교, 하다 못해 천주교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기독교였나요.

“다른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천주교는 교리상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를 시작으로 교리 공부를 하면서 따져보니, 성모 마리아가 그렇게 숭배받으셔야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미들맨’이 많은가 하는 게 가장 큰 의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모든 ‘직통 항로’들을 개설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알고 싶어서 성경공부를 시작했는데, 짧은 역사이지만 느낀 점은 훨씬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신앙은

각해 보십시오.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에게 취업 인터뷰를 앞두고 기도해 달라고 찾아옵니다. 할아버지는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묻고, 그들을 위해 기도 주겠습니까. 집안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손주들에게 돈을 쥐서 그런 권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신앙도 돈으로 하려 합니다.

제 아들이 두 명인데, ‘너희들이 성공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하고 유명해졌으면 좋겠다’고 바랄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코스는 분명 ‘실족’일 것입니다. 그것은 확률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억제하기 힘듭니다. 제 자식을 제가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 옛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갔던 길처럼 차원이 다른 꿈을 심어준다면 어떨까요. 유대 민족은 자녀들에게 그런 큰 꿈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본인의 삶을 산다면, 의사를 하든 변호사를 하든 수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도 참여한다’는 생각 때문에 훌륭한 인물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이 아닙니다. 한 집안에 영원히 썩지 않는 ‘소금’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인생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이지요. 성경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절대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는 허버트대, 예일대 간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 보니 정말 진리...**

**받아들이면 행복도 발전도 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팬들이 많으실텐데, 그 분들 중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저는 10대부터 연배에 비해 치열하게 살아 왔습니다. 죄인이긴 하지만, 삶이 뭐랄까 정리돼 있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근본적인 것에 대한, 앞면 대한 욕구들이 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보니, 정말 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쓴 책들은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데, 받아들인다면 행복도 있고 본인의 발전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식 세대에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발견하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부분들을 좀 귀담아 들어 주시고 좋은 것이니까 함께 나누시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대용 기자



공병호의 성경 공부 | 공병호 | 21세기북스 | 272쪽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되면, 기도를 할 때도 훨씬 깊이 대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호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기복 신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신자의 길에는 행복만 있진 않습니다. 고난이 오고, 손해볼 수도 있는데, 책을 내신 것은 ‘각오’가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앙을 두고 편익을 따질 순 없겠지요. 자식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겠다는 생각은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복잡하게 계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가 그것에 있다면, 갑니다. 그리고, 저는 늘 ‘마이내리티’로 살았고, ‘당신이 틀렸다’고 이야기 하면서 살았습니다. 옳은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노년 이 되면 사람이 비참해지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랜 기간 신앙생활하신 권사님들을 만나보면, 영적 파워가 느껴집니다. 사람을 확 끌어오. 생



**“세상적 성공 다음 코스는 분명 ‘실족’  
진리의 길은 계산 말고 가라”**

들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책을 썼느냐’고 하시는데, 경제 공부나 자기계발이나 하나님 공부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르신 건 영성의 차원이지요. 지성적 접근으로는 별다를 게 없습니다. 공부의 틀이 잡혀 있으면 핵심을 빨리 파악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도 조직신학을 중심으로 읽었습니다.”

**성경공부, 학문적으로 접근...**

**기본서 중심에서 확장**

-들어보니 어떤 방법으로 ‘성경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해지네요.

“성경을 읽을 때부터 목회자들이 보시는 해설서, 주석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모호한 걸 잡을 수 없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방에 헤드폰을 넣어두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운동을 하거나 차를 타면 계속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식이 축적되고 난 후에는 ‘오리 지널 성서’만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을 들으면서 왔습니다. 신학책은 조직신학을 많이 읽고, 교과서처럼 정리된 책들부터 읽었습니다. 웨인 그루텐과 벨코프의 조직신학 등 기본서를 읽고 확장해 나갔습니다. 기본서 중심, 텍스트북에서 확장하는 것이 제 방식의 공부입니다.”

-새신자들이나 불신자 입장에서는 책이 썩씩 들어올 텐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목회자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

사실 어떤 작가가 자신의 신앙관을 드러내는 일은 손해가 많습니다. 영국의 작가 폴 존슨을 좋아하는데, 그는 80대 중반이 되어서야 <예수 편전>을 썼습니다. 특히 저처럼 실용서 작가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손해가 올 수 있어서 밝히지 않는 편이지요.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리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근본은 성경적으로,  
세부적 완성은 자기계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계발과 소장님이 외쳐오신 자기계발은 다르지 않나요.

“물론 크게 다릅니다. 보통 자기계발서는 ‘캔 두 스피릿(Can Do Spirit)’,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뤄가는 것이지요. 굉장하 큰 접근 차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복을 자신이 만들어가고 성취해내는 것과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려는 것의 차이랄까요. 그러나 성경에서 엄청나게 적극적인 삶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도 느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갖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세상에서 많은 상을 받으려면, 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잖아요. 근본적인 시각은 둘의 차이가 크지만, 진지하고 참되게 사는 것에 대한 부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을

받습니다. 좌선이나 단전 같은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생각한다고 어두움이 광명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하지요. 말씀으로 채우면 됩니다. 여기 커피숍의 커피처럼, 계속 리필하면 됩니다. 제가 찾아낸 건 그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말씀으로 리필하라는 것이지요. 제가 책을 왜 씁니까? 말씀을 리필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더 좋은 설교에 대한 욕망이 너무 강해서, 주일에 멀리 용인까지 말씀을 들으러 갑니다. 설교 중에 세상 이야기하지 말고, 저를 좀 말씀으로 채워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운 말씀을 기반으로 목상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매일 해야 합니다(웃음).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매일 경험해야지요.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성경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오십 보 백 보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나은 사람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는 ‘선행을 베풀면 된다’고, 유학자들은 ‘학을 통해 도에 이를 수 있다’고, 불교에서는 ‘비우면 된다’고 하지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 ‘마진’을 거두기 위해 너무나 많은 ‘코스트’를 지불해야 합니다. 어떻게 평생 갖고 닦기만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 척추 전문 새로운 한방병원

비 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비 수술 척추 추나 치료  
척추 교정으로 척추질환과 척추 통증 치료 예방이 가능합니다.

**특진안내**

- ▶ 증풍
- ▶ 안면신경마비
- ▶ 척추디스크 요통
- ▶ 목디스크, 어깨 통증
- ▶ 무릎 관절염
- ▶ 위장병, 변비
- ▶ 갱년기 장애
- ▶ 산전산후 보약
- ▶ 어린이보약, 성장장애
- ▶ 심장병, 노이로제
- ▶ 두통, 치통, 산후통
- ▶ 관절통

**진료과목**

- 침구과
- 한방 소·아과
- 한방 내과
- 한방 신경정신과
- 한방 산부인과

원장 장재수  
40년 경력 척추 자세교정 전문가

T. 213)219-2739, 323)737-3789

351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 페인팅 (PAINTING)

## 마루 (Hard-wood Flooring)

정직 (HONESTY)!

(213) 923-2915

U.S. ENTERPRISE Co.

\*HAND MEN AVAILABLE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I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 TONERSUM

가격 때문에 칼라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니다 New & Used Buy & Sell

##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자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편리함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보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확기적인 절전제품 /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침실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 ✓ 트랜스미션
- ✓ 타이밍벨트
- ✓ 브레이크
- ✓ 튜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 치우차우만두

• 찐빵 • 고기만두 • 김치만두  
• 야채만두 • 물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배달합니다.

CHI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약,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편도선염, 비염, 천식, 아토피의

# “편강환”



서효석 박사 연구팀이 폐의 기운을 복돋운 결과, 폐질환은 물론, 피부질환까지 그 효능이 탁월해서 전세계인에게 보급시키고자 미국에 상륙시킨 편강환!

임상실험에서 그 효능이 입증된 증상들

- \* 목 감기(편도선염)
- \* 기관지 확장
- \* 코감기 및 비염
- \* 폐기종
- \* 기관지염 및 천식
- \* 폐성유학
- \* 어린이의 감기 예방
- \* 폐렴
- \* 아토피성 피부염
- \* 기미, 여드름, 주근깨, 검버섯

## 치매는 치매탕으로

특징

1. 인지능을 상승시켜주는 아세틸콜린 농도 증가
2. 굳어지는 혈액을 풀어주는 PLASMIN 활성화되다
3. 치매의 원인이 되는 B - AMLYOID를 제거
4. 뇌세포를 파괴하는 산화스트레스 제거
5. 뇌의 혈류를 촉진시켜 영양과 산소 공급 증가
6. 임상에서 보여주는 사례

임상에서 보여주는 사례

1. 치매환자에게서 뛰어난 인지능력 개선효과와 기억력이 검증되었다
2. 뇌세포를 파괴하는 B-AMLYOID를 정상수준으로 유지되었다
3. ANTI-PLASMIN의 작용으로 혈액응고를 풀어주어 정상 수치 유지됨을 보았다
4. 염증반응의 조절기능이 향상되었다
5. 혈관 확장 능력의 회복과 혈액 흐름의 증가가 현저하게 개선됨을 보았다

편강 · 실로암 한의원 원장: Oh, Pyong Un

전화 : (213)427-0036, (213)675-8524, Fax: (213)427-0195  
2621 W.Olympic Bl. #202 Los Angeles, CA 90006 www.siloamherbal.com

# win 원현대 칼슨 HYUNDAI

## "Grand Opening Sale"

• 그랜드 오픈 기간에만 특별가 제공 •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15,000 스퀘어 피트 뉴스룸 오픈

브로커 환영

ashin@winhyundaicarson.com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 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33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 고객사랑 앵콜 대세일!

100% 천연 물질이면서 미국 FDA에 일반 의약품으로 등록된 암치료제 미라팜-22를 출시하면서 세계 최초의 쾌거에 대한 보답으로 HQ구연산을 사상 최저가로 한 달간 세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HQ구연산의 명성이 여실히 드러난 폭발적인 성원이었습니다.**  
더 많은 고객분들의 아우성으로 인하여 **재차 앵콜세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HQ구연산을 성원하는지는 300만명의 판매 기록 실적이 증거하겠지만 식탁에 꼭 비치해 놓으시고 매번 식사 때마다 챙겨 드시면 음식의 영양분들이 완전 소화 흡수가 되어 건강 장수하시게 됩니다.

HQ구연산은 도매가 이하로 고객 직판을 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점이나 마켓에서는 구입하실 수 없으므로 타사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구연산을 드실 때 신맛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저희 미네랄 건강소금을 함께 타서 드시게 되면 에너지 드링크가 되어 건강에도 좋고 먹기에도 편리합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알파3병 + 오리지널7병 = 10병

프로모션 **A**

~~\$360~~ **\$100** No Tax

오리지널 10병 + 미네랄 소금 2봉지(2LB)

프로모션 **B**

~~\$360~~ **\$100** No Tax

알파6병 + 오리지널2병 = 8병

프로모션 **C**

~~\$360~~ **\$100** No Tax



한 병은 2-3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병의 근원

##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물질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훈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뿐해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낮게했다.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다음.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거나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당뇨로 앓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가장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옴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찌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만성 아토피와 간염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퍼졌음.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옴.
  - ★쌀이나 아재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안이 되었다.

### 이부영 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건편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약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내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용연연구소 수료  
응학파 분석사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8th St.  
Western Ave.  
로데오 갤러리아  
(로데오갤러리아 마주관광 물내)

## HQ 헬스, Inc. / HQ 바이오텍

833 S. Western Ave. #1 Los Angeles, CA 90005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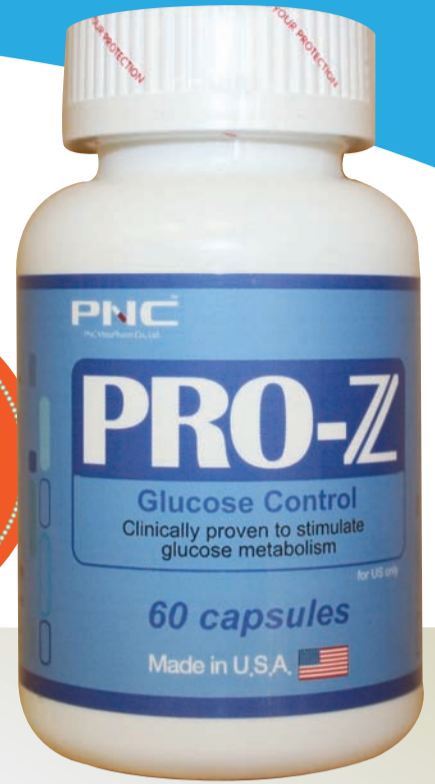
월-금: 10am-7pm, 토:10am-5pm

# 30만병 판매 기념 특별이벤트

## 지긋지긋한 당뇨병 탈출

평생을 안고가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신제품**  
소비자가 \$76  
\* 한국에서는 \$120에 판매중



### !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 개선을 PRO-Z가 해결해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 데 그쳤으나 PRO-Z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재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1병 \$76      2병 \$120

### 프로지 효능사례

#### 김 OO 장로(당뇨 10년) :

프로지를 아침, 저녁 하루 3알을 6달 정도 복용 후에 차츰 당 수치가내려가 지금은 정상인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짐. 몸이 부어 걷기 불편했는데 붓기가 가라앉아 지금은 걷는데 지장이 없어 졌습니다.

#### 최 OO 목사(당뇨 30년) :

프로지를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 3알을 6달간 복용하니 차츰 당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 했습니다. 서서히 내려가던 당이 7개월째는 정상인 수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혈당 조절을 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가려서 먹다 보니 뱃 밖에 안 남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음식을 이것 저것 잘 먹으니 몸에 살이 붙고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알만 먹습니다.

#### 이 OO 집사(전립선) :

전립선이 심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서있고 앉아 있는 것도 너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프로지를 하루 3알 4달간 복용하고 나서 고통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타민 처럼 하루에 2알씩 꼬박꼬박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 정 OO 집사 :

몸이 늘 피곤하고 무겁고 입안에 입병이 자주 났었는데, 프로지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알씩 한달 정도 먹고 나니 피곤하고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덜해졌습니다. 4개월 정도 먹고 있는 지금은 입병도 거의 안 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제 몸에 부족했던 아연이 보충이 되니 만성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을 하며 주위 분들에게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뇨전문 치료 한의원인 실로암 한의원에서도 PRO-Z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Tel . 213.427.0036

2641 W.Olympic Bl. #202  
Los Angeles, CA 90006



####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과 대학 박사로서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미국 FDA에 치료약으로 신청중이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품계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소한 6개월 복용시 췌장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확신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 프로지 셀러 모집중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 셀러 모집  
상담환영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213.434.1170

당뇨병의 원인 치료개선제  
**PRO-Z**